

# SBI FinTech Solutions



# TABLE OF CONTENTS

## 01 FY2022 Overview

---

Financial Highlight

사업부문별 비교

주요 자회사 매출 추이

## 02 Business Overview

---

Market Summary

결제서비스 사업

백오피스SaaS 사업

국제송금 사업

## 03 Appendix

---

주주환원방침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지배구조

회사 개요 및 연혁

SBI그룹

---

### Disclaimer

- 본 자료에 게재된 사항은 투자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고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완전성 및 사업전략 등 장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의 재무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료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IFRS 재무수치는 표시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FY2021 4Q 종속회사 매각으로 IFRS 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를 적용하여 FY2021 4Q 이전의 과거 수치를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 FY2022 Overview

Financial Highlight

사업부문별 비교

주요 자회사 매출 추이



# Financial Highlight

**FY22 연결실적은 매출액 5,401백만엔, 영업이익 448백만엔, 당기순이익 361백만엔을 기록하여 YoY 각각 ▲2.6%, +18.8%, 흑자전환하며 전년대비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FY22 매출액 : 백오피스SaaS 및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의 순조로운 성장세 시현. 단, 국제송금 사업 기저효과로 인해 YoY ▲2.6%
- FY22 영업이익 :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가 순조롭게 성장하여 결제서비스 사업의 영업이익은 662백만엔, 백오피스SaaS 사업은 신규 솔루션 고객 급증으로 연간 흑자전환. 국제송금 사업은 팬데믹 완화로 인해 업황 개선되며 96백만엔 기록
- FY22 EBITDA : 연간 1,062백만엔(Margin rate 19.7%), 4Q 기준 256백만엔(Margin rate 18.8%) 기록하며 견조한 현금창출능력 확보

단위: 백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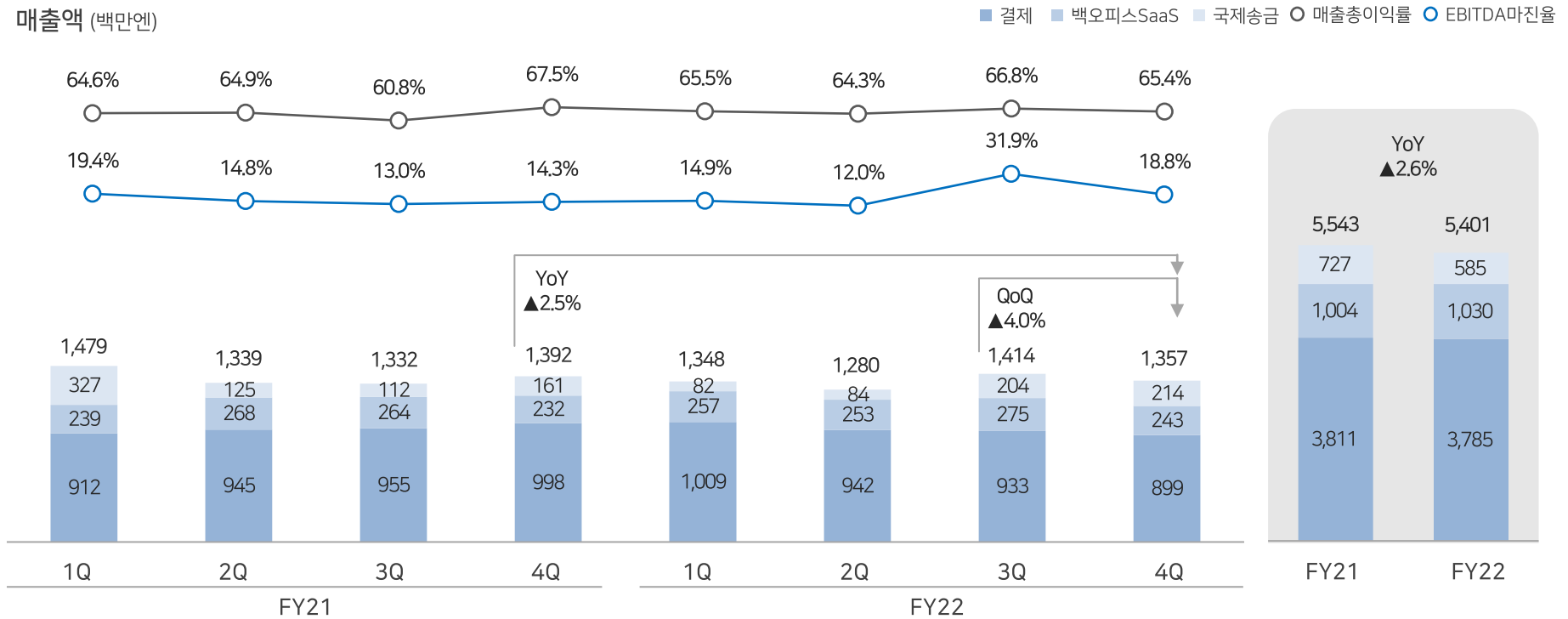
구분	1Q	2Q	3Q	4Q	FY22	FY21	YoY
매출액	1,348	1,280	1,414	1,357	5,401	5,543	▲2.6%
매출총이익	883	823	944	887	3,538	3,573	▲1.0%
영업이익	58	(6)	296	99	448	377	+18.8%
EBITDA	202	154	451	256	1,062	859	+23.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0	1	247	116	445	234	+90.2%
당기순이익	57	0	186	117	361	(534)	흑자전환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57	1	185	114	359	(537)	흑자전환

# Financial Highlight

FY22 4Q 연결매출액은 국제송금 사업 및 백오피스SaaS 사업의 업황 개선이 확인한 가운데, 결제서비스 사업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성장 추이가 이연되었습니다.

- 결제서비스 사업 : 결제가맹점 포트폴리오 조정 및 파이낸셜 솔루션 취급잔액 소폭 감소에 따라 4Q 매출액 899백만엔 기록(YoY ▲9.9%)
- 백오피스SaaS 사업 : 「청구QUICK」 등 신규 서비스 모객 효과 지속되며 4Q 매출액 243백만엔 기록(YoY +5.0%)
- 국제송금 사업 : 팬데믹 완화 및 일방적인 원화 약세 기조 소멸로 영업환경 정상화되며 4Q 매출액 214백만엔 기록(YoY +32.8%)

매출액 (백만엔)



※ FY2021 4Q 증속회사 매각으로 IFRS 5호(매각예정비무용자산과 중단영업)를 적용하여 FY2021 4Q 이전의 과거 수치를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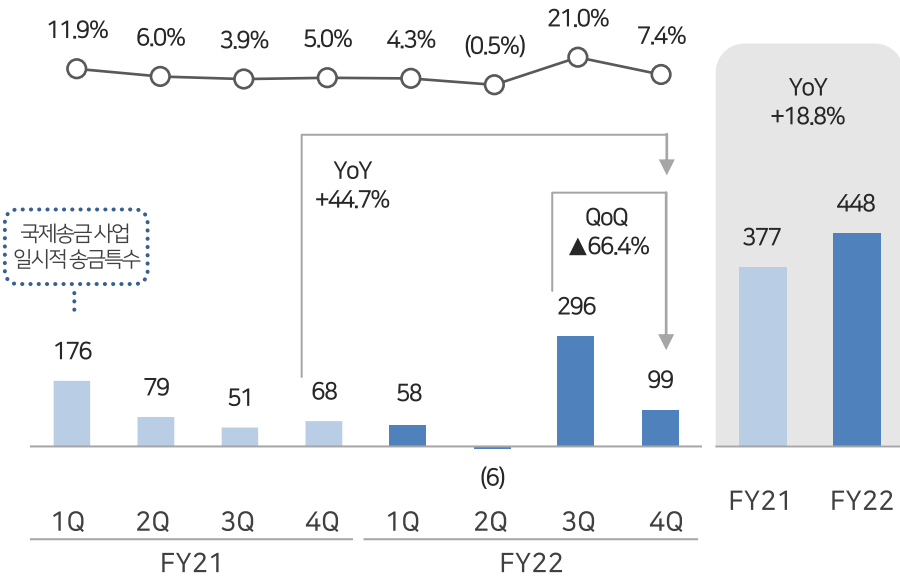
# Financial Highlight

FY22 4Q 연결영업이익은 국제송금 사업과 백오피스SaaS 사업의 호조로 99백만엔을 기록(YoY +44.7%)하며 상저하고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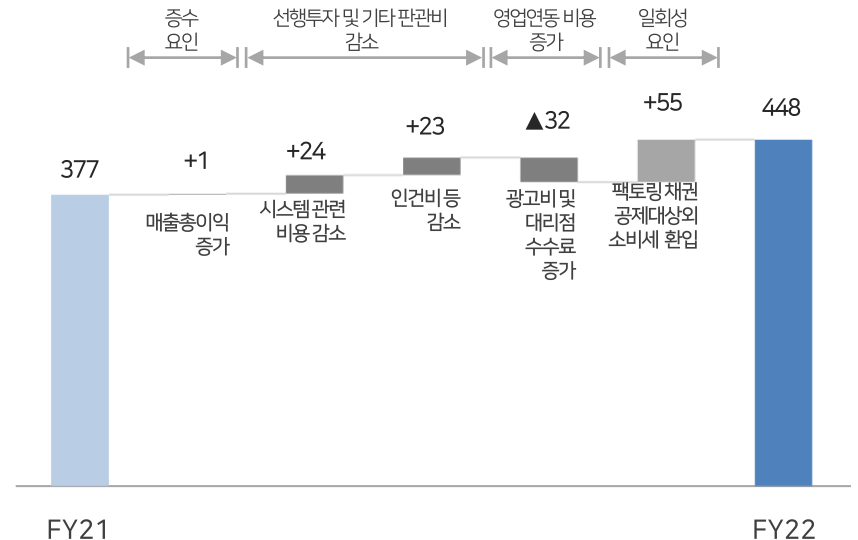
- 백오피스SaaS 사업은 선행투자로 인한 영업손실에서 3Q부터 흑자전환하여 4Q 영업이익 31백만엔 기록하며 연간 흑자전환
- 4Q 국제송금 사업은 뚜렷한 업황 개선세로 영업이익 75백만엔 기록(영업이익률 35.2%)하며 연결 영업이익률 향상에 공헌
- FY22 연간 판관비 YoY 1.2% 감소, 신규 사업 관련 시스템 개발 등 판관비 증가세 일단락 효과. 다만 4Q 대손충당금 계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세 다소 조정

영업이익 (백만엔)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백만엔) - YoY 증감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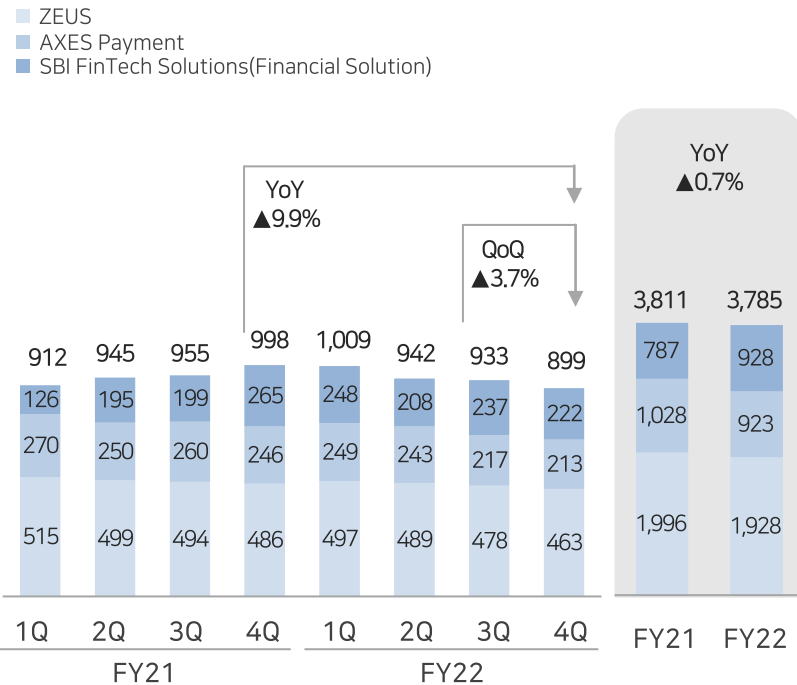
※ FY2021 4Q 중속회사 매각으로 IFRS 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를 적용하여 FY2021 4Q 이전의 과거 수치를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 사업부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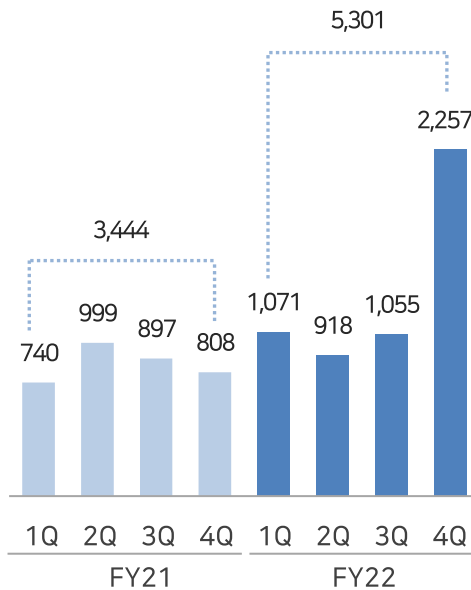
FY22 결제서비스 사업은 신규 서비스 출시와 기존 결제가맹점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외형성장에 시차가 발생되고 있지만,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의 견조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결제대행 서비스 : FY22 연간 결제취급액 YoY 3.1% 증가. 일부 계속기업 판단이 어려운 가맹점 포트폴리오 조정이 연중 지속된 가운데, FY22 연간 결제가맹점 신규사이트 획득은 5,301건으로 YoY 53.9% 증가. SME 및 B2B 타겟 서비스 출시로 인한 수수료율 조정은 향후 탄력적인 매출 증가세 구현할 것으로 전망
-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 : FY22 연간 매출채권 평균 취급잔액은 YoY +28.0% 증가한 178억엔 기록하여 순조로운 사업 확장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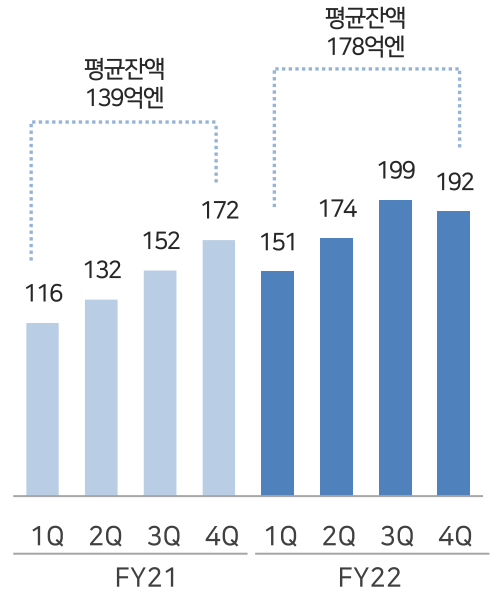
결제서비스 사업부문 매출액 (백만엔)



결제가맹점 신규사이트 획득수 (건)



파이낸셜 솔루션 매출채권 취급잔액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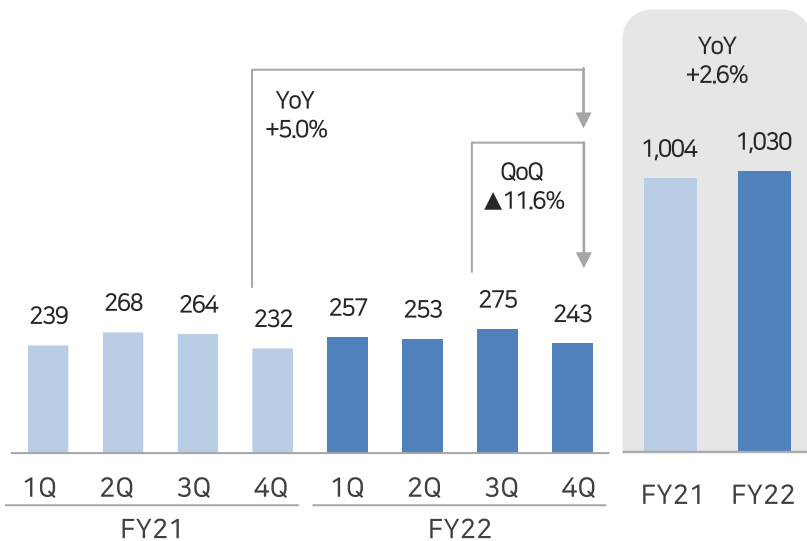
※ 각 자회사별 매출액에는 연결 대상 법인의 부문간 내부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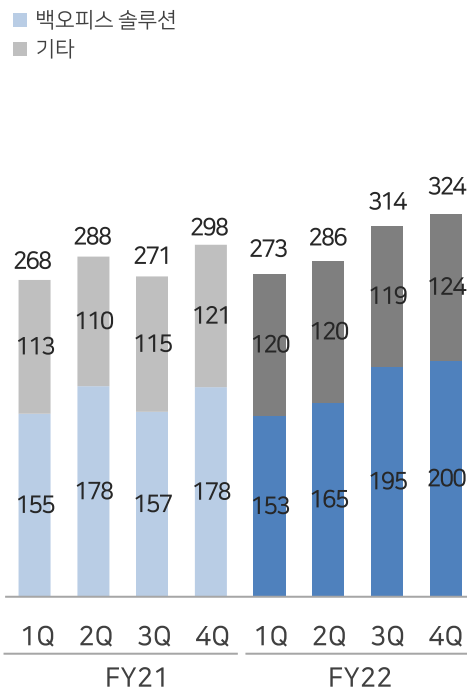
FY22 백오피스SaaS 사업은 일본의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른 우호적인 시장환경 하에 신규 출시 서비스의 반응 호조로 법인고객수 급증하며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신규 서비스「청구QUICK」은 22년 3월 출시 이래 업계 최고수준의 고객 획득 페이스를 시현하며 당사 누적 법인고객사수 6,066사 달성
- FY22 연간 백오피스SaaS 사업부문 매출액 YoY +2.6%, 영업이익 +107.3%으로 하반기 손익분기점 돌파 후 지속 성장 가능한 체제 구축
- 다양해진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청구QUICK」의 백오피스 플랫폼화를 진전시켜 본격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성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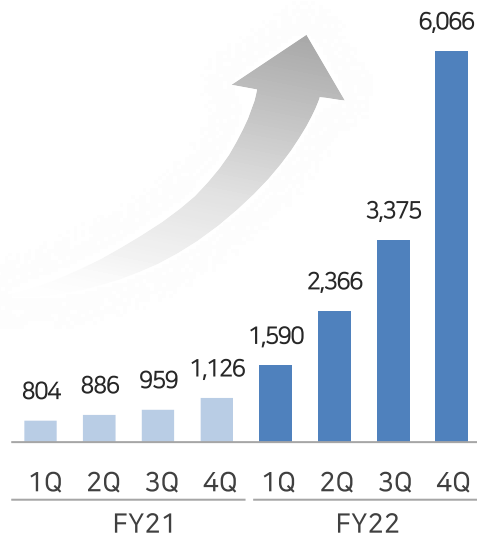
백오피스SaaS 사업부문 매출액 (백만엔)



서비스별 매출액 (백만엔)



누적 법인고객수 (사)



※ 각 자회사별 매출액에는 연결 대상 법인의 부문간 내부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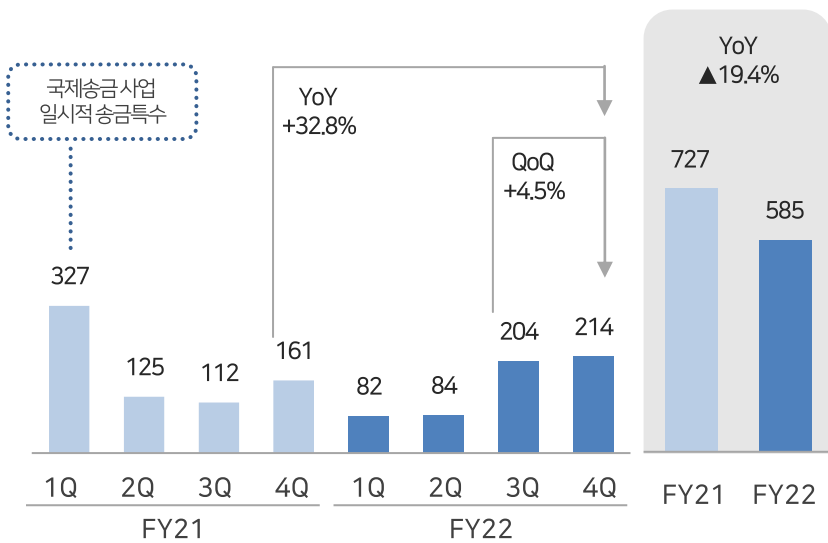


# 사업부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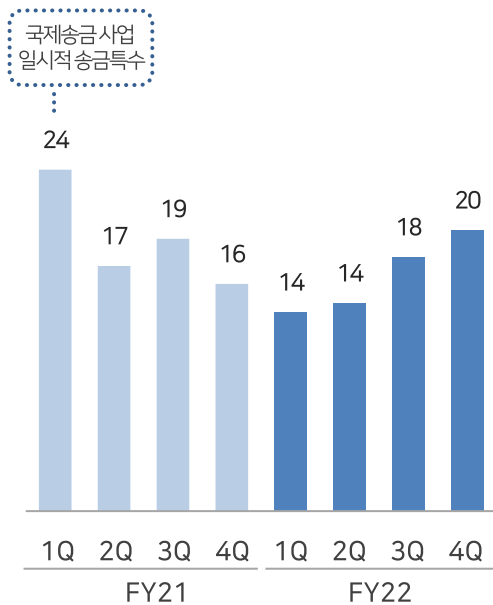
FY22 국제송금 사업은 팬데믹과 원화 약세로 인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정상화되는 과도기를 거치며 2년 연속 연간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 FY22 국제송금 사업은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외환수익 증가로 매출액 214백만엔(QoQ +4.5%) 기록하며 송금 적체수요 해소
- '23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직종 확대, 10년 이상 체류 허가 등 고용허가제 개편 및 신외환법 개정 예정으로 국제송금 시장 성장 전망
- '23년 신규 프리펀딩 파트너 개척 및 고객 편의성 높은 프로젝트 개발로 국가별 점유율 개선 및 신규 송금국가 확대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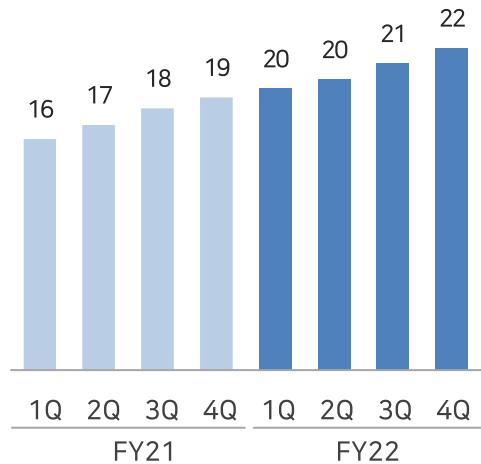
국제송금 사업부문 매출액 (백만엔)



국제송금건수 (만건)



누적 회원수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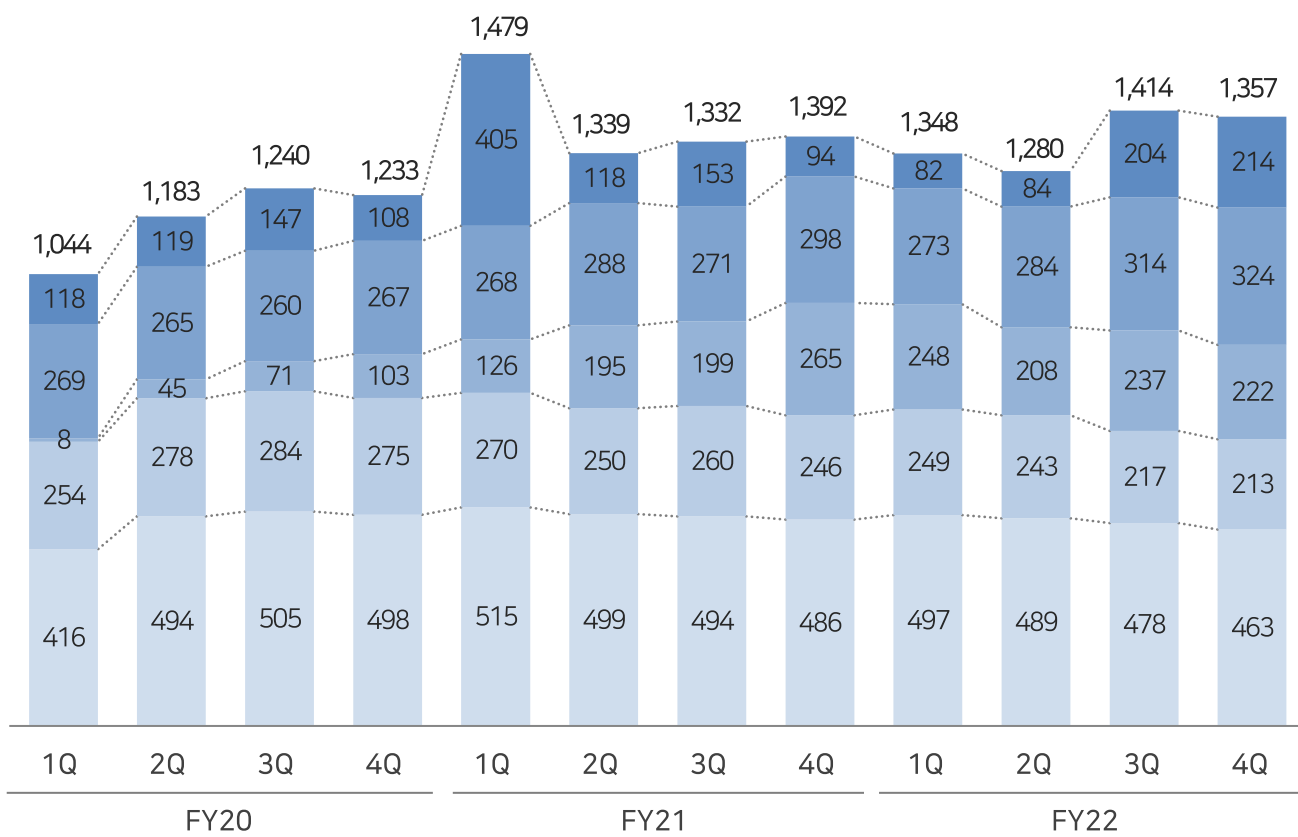
※ 각 자회사별 매출액에는 연결 대상 법인의 부문간 내부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자회사 매출 추이

주요 자회사 매출액 (백만엔)

■ ZEUS   
 ■ AXES Payment   
 ■ SBI FinTech Solutions(Financial Solution)   
 ■ SBI Business Solutions   
 ■ SBI Cosmoney

■ 결제서비스 사업   
 ■ 백오피스SaaS 사업   
 ■ 국제송금 사업



	YoY	QoQ
SBI Cosmoney	+127.7%	+4.5%
SBI Business Solutions	+8.8%	+3.3%
SBI FinTech Solutions (Financial solution)	▲16.3%	▲6.4%
AXES PAYMENT	▲13.7%	▲1.9%
SBI GROUP ZEUS Payment Service	▲4.6%	▲3.1%

※ 각 자회사별 매출액에는 연결 대상 법인의 부문간 내부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결매출액은 FY2021 4Q 종속회사 매각으로 IFRS 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를 적용하여 FY2021 4Q 이전의 과거 수치를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 Business Overview

Market Summary

결제서비스 사업

백오피스SaaS 사업

국제송금 사업





일본과 한국에서 최적의 FinTech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FinTech 솔루션 기업」입니다.

### 결제서비스 사업

결제대행 서비스 |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

EC사업자에게 다양한 결제 및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ZEUS | AXES Payment | SBI Fintech Solutions

### 백오피스SaaS 사업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청구서 관리 및 경비정산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백오피스 솔루션을 제공



SBI비즈니스솔루션즈

### 국제송금 사업

국제송금 서비스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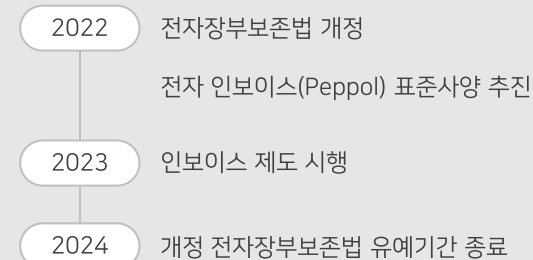
SBI코스머니

# Market Summary

## 일본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는 아날로그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DX)입니다.

-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아날로그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2021년 '디지털청' 신설
-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업무 효율화, 업무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과제로 등장
- 일본 중소기업 190만 중 약 80%는 청구서 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 중
- 2023년 인보이스 제도, 2024년 전자장부보존법 전격 시행에 따라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위한 백오피스SaaS(Software as a service) 도입은 현재 일본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

###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DX 추진 정책



###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대상기업: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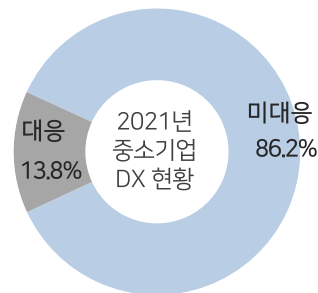
- EDI,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서, 청구서, 영수증 등의 거래정보를 수취하는 경우 일정의 요건 갖춰 전자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 법령의 일정 요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 가능

### 인보이스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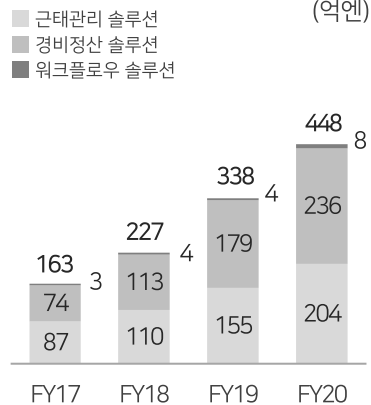
대상기업: 소비세의 과세 사업자

- 경감세율 적용에 따라 청구서 발행자가 적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소비세 관련 제도
- 과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적격청구서 발급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번호를 받아야 하며,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법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한 적격청구서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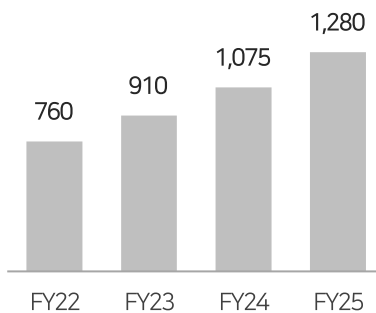
### 일본 중소기업의 DX 현황



### 클라우드 ERP 솔루션 시장규모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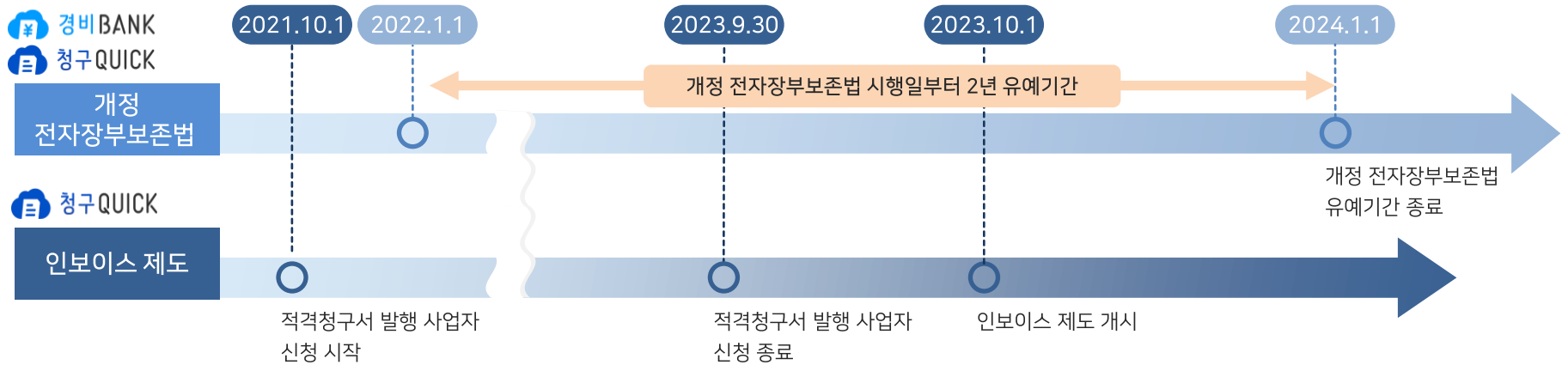
### 클라우드 ERP 솔루션 수요예측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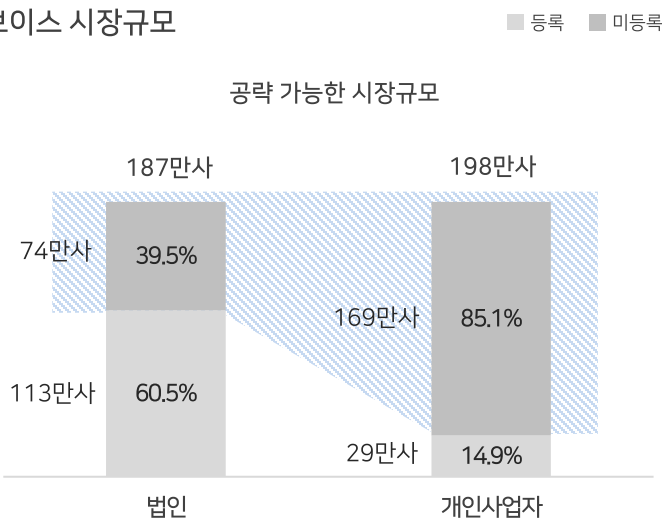
자료: 맥경제연구소

# Market Summary

향후 1년 일본에서는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본격적인 개정법과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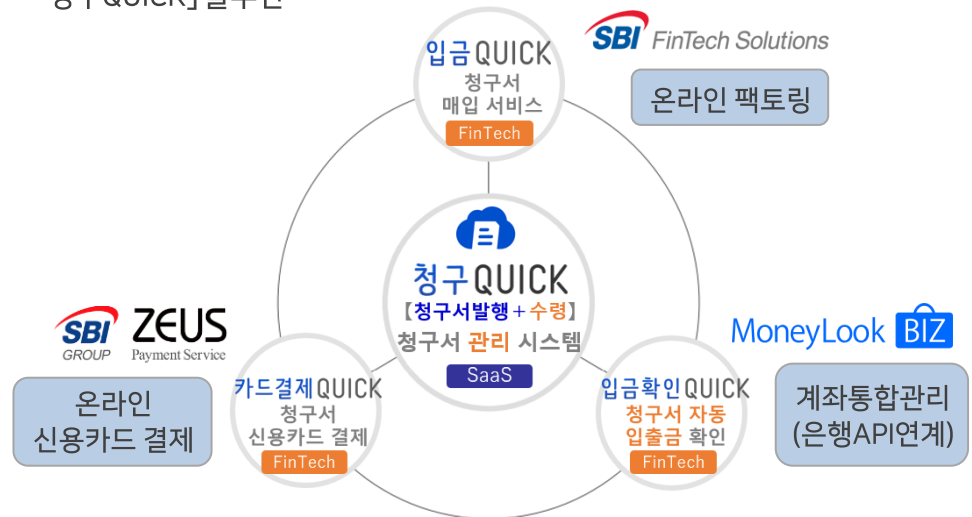


## 인보이스 시장규모



자료: 도쿄상공회의소 리서치

## 「청구QUICK」 솔루션



# Market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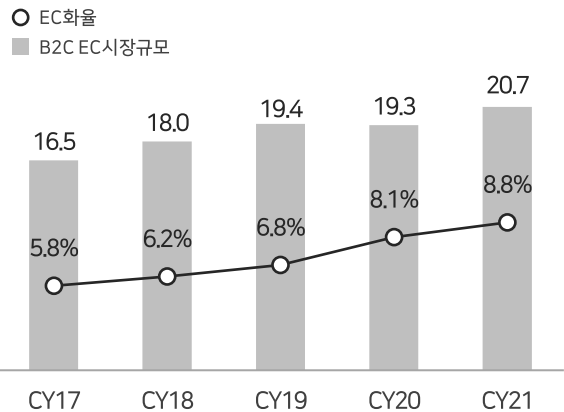
## 일본의 캐시리스(Cashless)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일본은 치안이 좋아 현금의 도난 우려가 적고 위조지폐도 많지 않아 현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금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비접촉 결제 수단의 이용이 가속화되며 캐시리스 결제 도입이 확대
-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 비전'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비율 40% 목표 설정
- 포인트나 할인 등 카드사 마케팅으로 캐시리스 결제의 혜택이 증가하여 2022년말 기준 민간소비지출 대비 캐시리스 결제비율은 36.0%로 확대기조 지속
- 캐시리스화를 포함한 결제 인프라의 고도화가 일본의 성장 전략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 일본 캐시리스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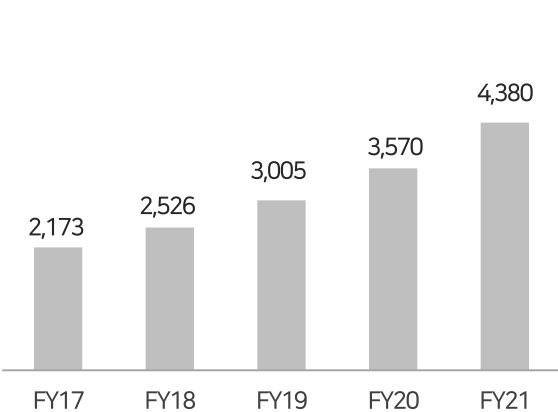
- 2017 방일외국인 위한 인프라 개선책으로 캐시리스 추진
- 2018 캐시리스 추진협의회 설립
- 2019 정부차원의 캐시리스 추진 사업 「캐시리스·소비자환원사업※」 시행  
※ 카드단말기 인프라 보급과 더불어 캐시리스 결제 이용자에게 포인트 환원 등을 지원
- 2022 11월 캐시리스법 시행으로 공적 자금 캐시리스 결제 순차적으로 도입 전망

B2C EC시장규모 (% 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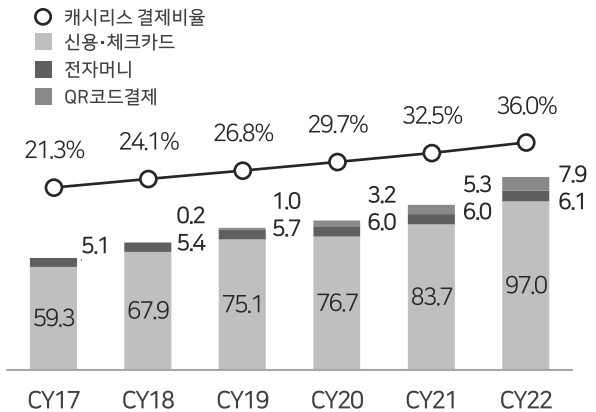
자료: 경제산업성

전자결제서비스 시장규모 (억엔)



자료: 미래경제연구소

민간소비지출 대비 캐시리스 결제비율 (% 조엔)



자료: 경제산업성

# Market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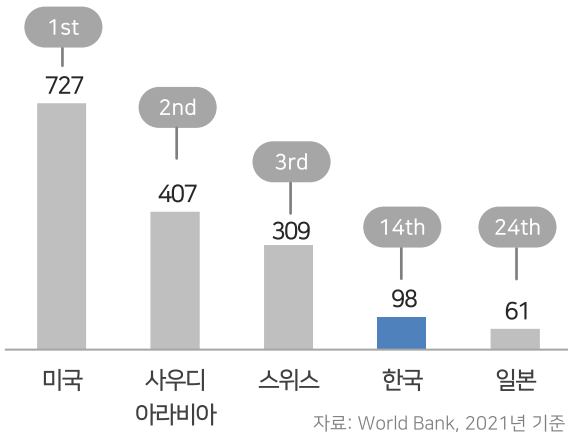
## 한국의 진전된 FinTech와 견조한 시장규모는 국제송금 시장의 기회 요인입니다.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전 세계 개인 국제송금 규모는 약 4,203억 달러(2021년 기준)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4.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내 체류외국인수는 2019년 역대 최고치 252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0만명 전후로 감소한 상태.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제송금 잠재수요자의 입국자가 증가될 전망
-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이 신설됨에 따라 FinTech 업체도 국제송금이 가능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국제송금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 FinTech를 활용한 국제송금서비스는 소액송금을 여러 건 묶어 보내는 Pooling 방식, 해외 제휴은행에 미리 자금을 유치해두는 Prefunding 방식 등을 활용해 수수료와 시간을 절감하여 기존 은행권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경유 송금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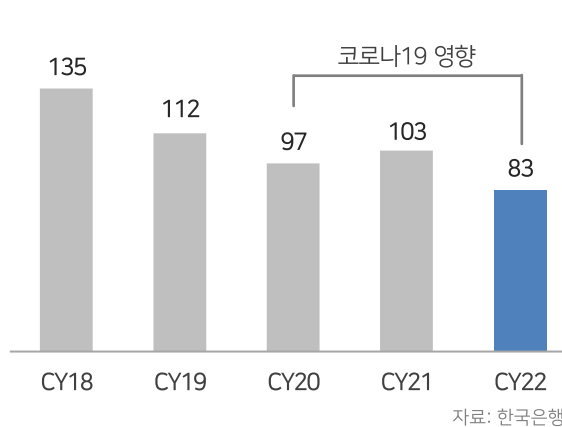
### 한국 FinTech 국제송금 시장

- 2017.07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FinTech 업체도 국제송금업이 가능하게 하는 소액해외송금업 신설  
1인당 연간 송금한도 USD 20,000
- 2018.01 SBI Cosmoney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 2019.10 1인당 연간 송금한도 USD 50,000로 개정
- 2022.12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업체 총 28개사
- 2023 신외환법(연간 송금한도 폐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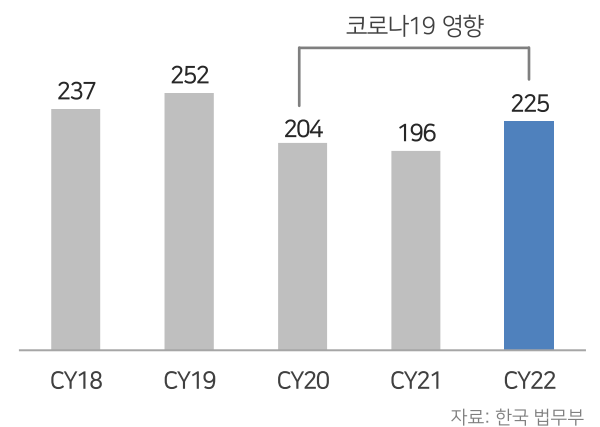
글로벌 국제송금액 (억달러)



한국 내 개인 국제송금액 (억달러)



한국 내 체류외국인수 (만명)





## 결제서비스 사업

ZEUS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말기·POS 등 다양한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AXES Payment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SBI FinTech Solutions



SME(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춘  
파이낸셜 솔루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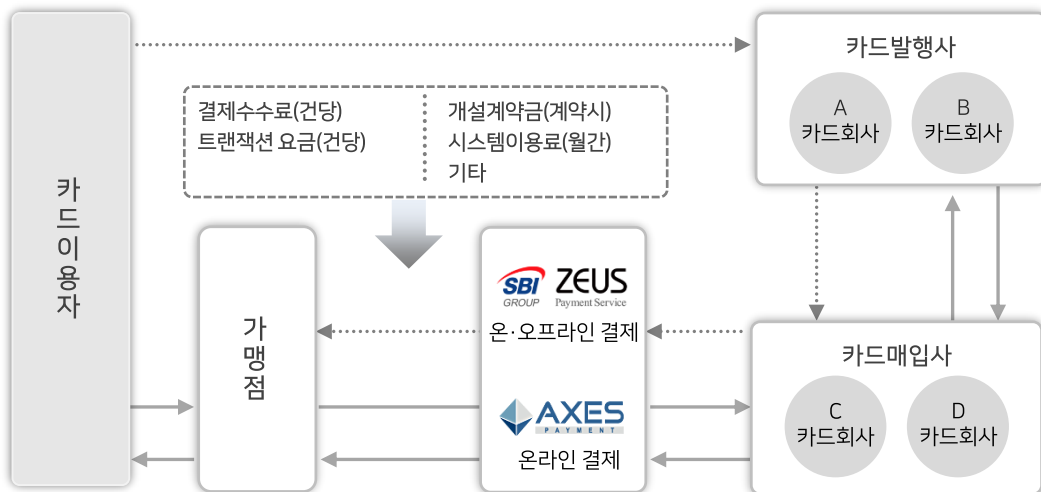


결제서비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제대행 서비스와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 간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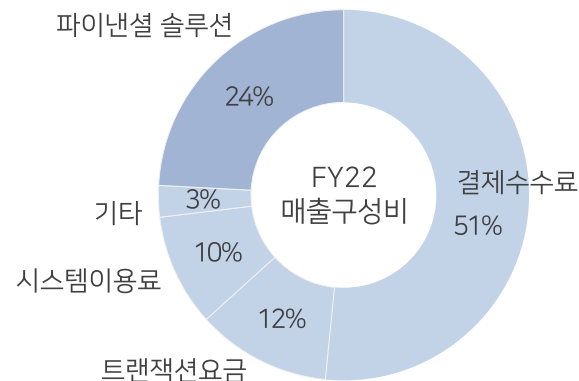
## 비즈니스 구조



→ Transaction Data Flow    ..... Money Flow




## 매출구성



구분	정의
<b>결제대행 서비스</b>	
결제수수료	결제금액당 일정 비율로 수취하는 수수료
트랜잭션요금	결제데이터 1건당 발생하는 처리수수료
시스템이용료	결제시스템, 매출관리시스템, 고객지원에 대한 월 이용료
기타	개설계약금 및 대리점보수, 단말기 수수료 등
<b>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b>	
매입수수료	채권 매입 수수료

다양한 결제 솔루션 라인업은 온라인/오프라인 고객 확보의 필수 경쟁력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p>국제카드 브랜드 및 다양한 카드사에 대응</p>
--	-------------------------------


편의점 결제

	<p>전국 43,000개 이상 주요 편의점에서 24시간 대응</p>
---	---------------------------------------

계좌이체 결제

	<p>전국 34,800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응</p>
---	-------------------------------


전자머니 결제

	<p>소액결제 특화 서비스 라쿠텐 Edy, Chocom e머니 대응</p>
---	---


캐리어 결제

	<p>구매대금을 핸드폰 요금에 합산 결제</p>
---	----------------------------

Pay-Easy 결제

	<p>ATM/모바일뱅킹으로 24시간 365일 간편결제</p>
---	-----------------------------------

메일 결제

	<p>결제URL을 이용자 메일 등으로 전달하여 결제</p>
--	----------------------------------

단말기 결제

	<p>점포 내 고정형 외 이동식, 스마트폰, 테블릿 대응으로 다양한 이용환경</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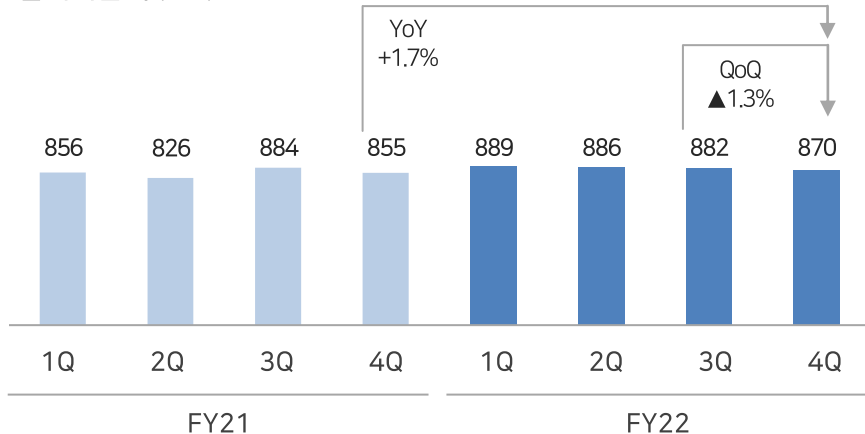
후불 결제

	<p>상품 수령 후 편의점·은행·우체국 등에서 결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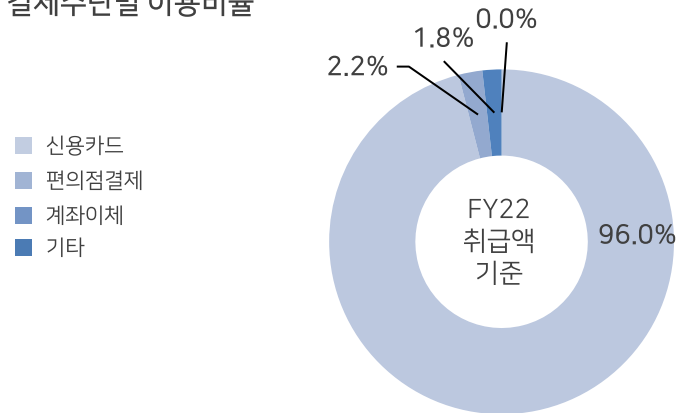
## 결제대행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결제가맹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영향 및 기존 가맹점 포트폴리오의 조정구간을 거치며, FY22 기준 결제취급액 3,526억엔(+3.1%), 결제처리건수 3,545만건(▲0.1%)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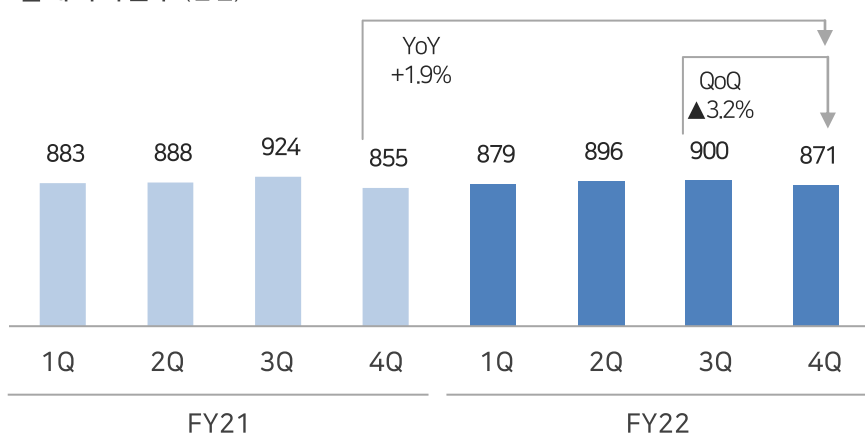
결제취급액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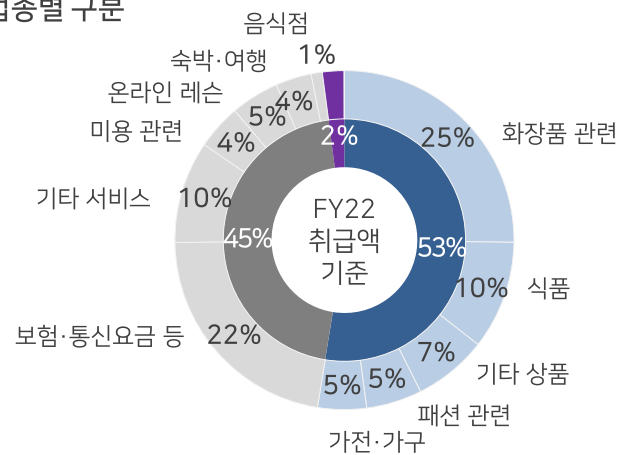
결제수단별 이용비율



결제처리건수 (만건)



결제취급액 업종별 구분



## Small EC 특화 결제 플랫폼· B2B 전용 결제서비스를 신규 런칭하며 서비스 경쟁력을 대폭 개선 중입니다.

- 개인사업자용 결제 브랜드 「Pochi PAY」 런칭, 심플한 요금 구성으로 Small EC 마켓 점유율 확대 전략
- 인보이스 제도, 전자장부보존법 개정 등에 따라 기업간 거래에서도 효율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용카드 결제 수요 증가

### 개인사업자용 결제 플랫폼

간단하고 심플한 구조로 온라인 사업 초보자 위한 결제 플랫폼  
가입신청 디지털화로 도입기간 대폭 축소



#### STEP1

결제 URL 발송



#### STEP2

결제 정보 입력



#### STEP3

결제 완료



LINE Zoom SMS DM

### B2B 전용 결제 서비스

컨설팅·회계사 등 전문 업종의 고문료나 컨설팅 보수,  
솔루션 업체의 시스템 이용료 등 다양한 분야로의 도입을 확대

#### BizCreca

B2B 전용 온라인 카드결제 서비스

#### BizCreca 단말결제

B2B 단말기 결제 서비스

#### BizCreca Conn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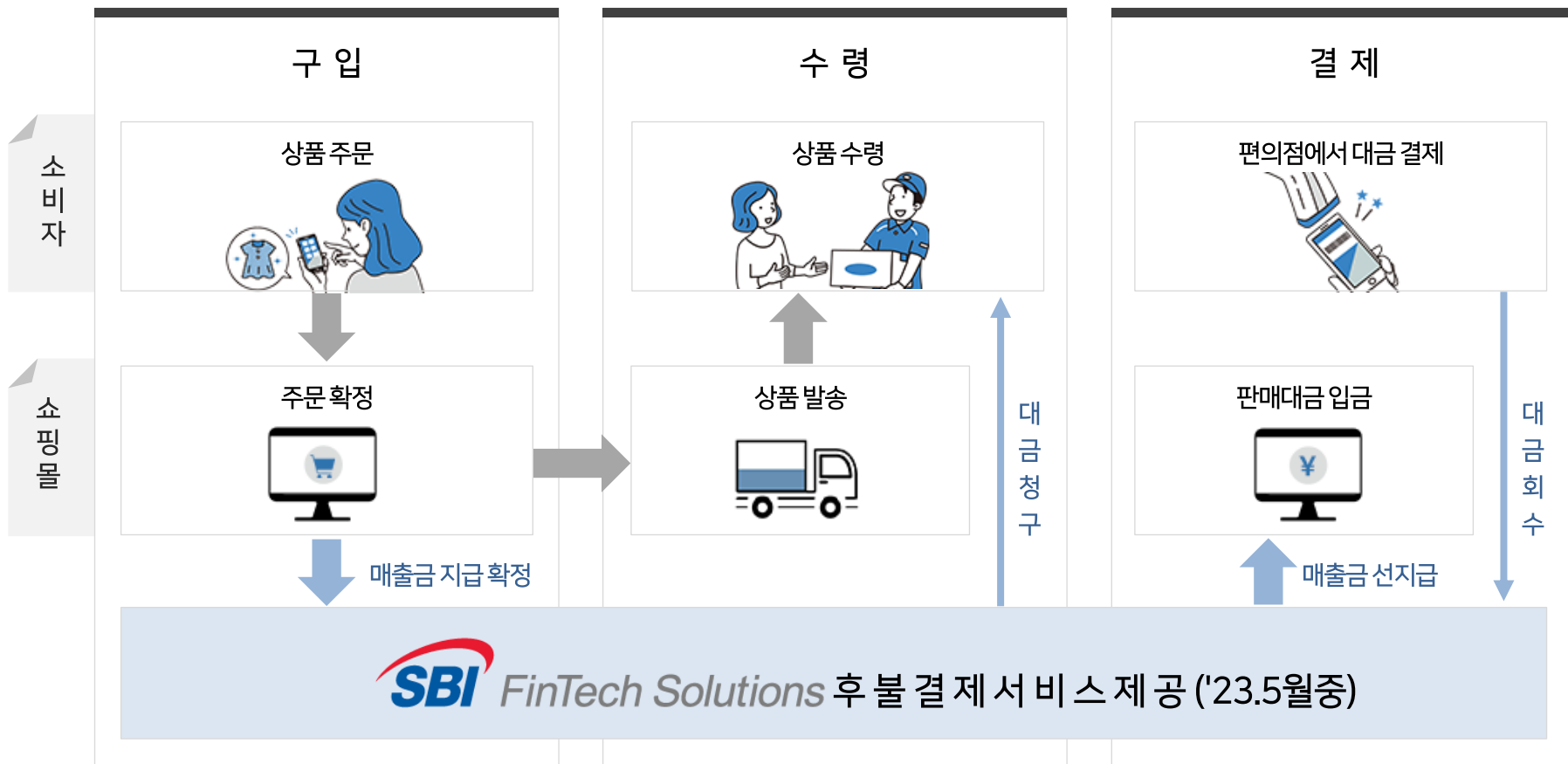
개발자 대상 B2B 전용 시스템 접속형 카드결제 서비스

#### 카드결제QUICK

전자청구서 카드결제 서비스

## 급성장중인 후불결제 시장에 진입하여 신용카드와 후불결제를 일괄 제공하는 유일한 PG 사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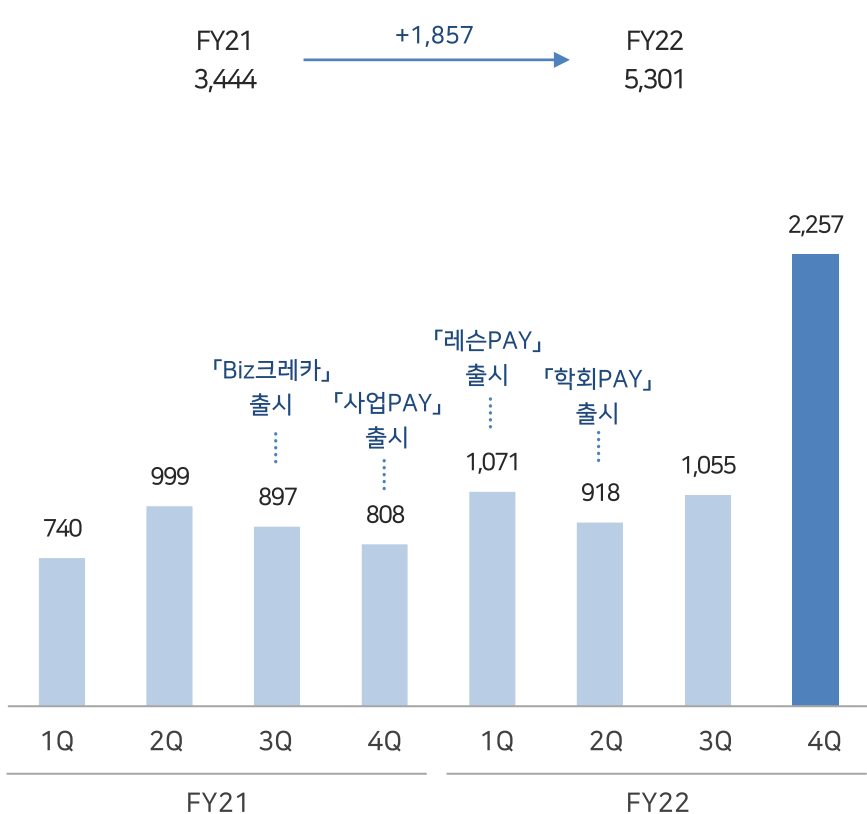
- 후불결제(BNPL)는 Buy Now(지금 사고) Pay Later(나중에 결제)하는 새로운 결제서비스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소비자층으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중
- 일본의 후불결제 시장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20%를 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3조 3000억엔 규모가 될 전망
- 60여 PG 사업자 중 직접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회사는 4개사로 SBI FinTech Solutions는 신용카드와 후불결제를 웹신청으로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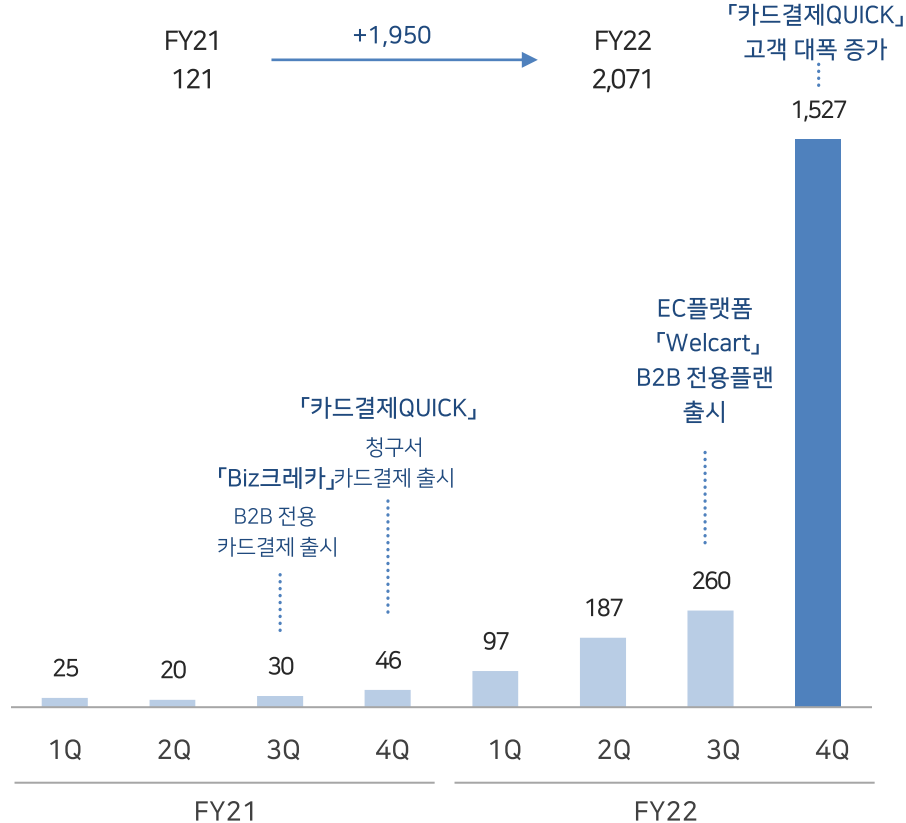
## 신규 서비스 출시로 인한 결제가맹점 획득 효과는 시차를 두고 향후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 결제 관련 다수의 신규 서비스 출시 이후 신규사이트 획득수는 FY22 기준 YoY +53.9%
- 「Biz크레카」, 「카드결제QUICK」 등 B2B대상 신규서비스 런칭 효과로 B2B 결제가맹점 신규사이트 획득수는 FY22 기준 YoY +625.3% 급증세

결제가맹점 신규사이트 획득수 (건)



B2B 결제가맹점 신규사이트 획득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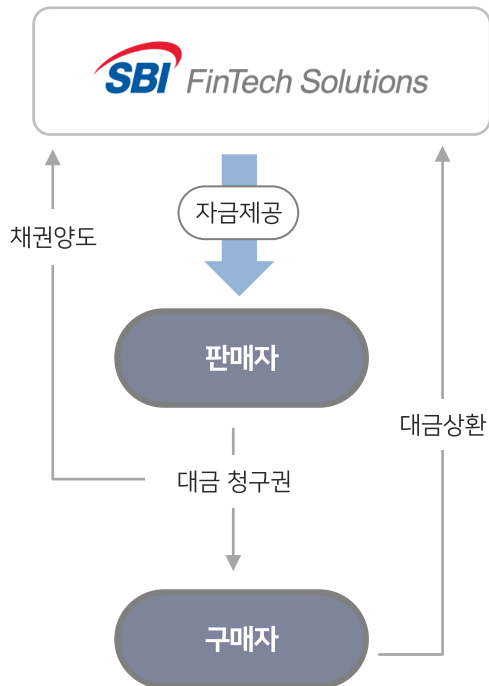
※ 상기 데이터는 ZEUS, AXES Payment의 KPI를 통합한 수치입니다.

## SME의 자금조달 수요를 해결하는 Factoring 서비스를 비롯하여 차별화된 파이낸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BI의 자금조달력과 FinTech를 활용한 심사모델 이용하여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SME 등 다양한 기업의 자금수요에 최적 솔루션을 제공
- FinTech를 이용한 심사 모델로 다양한 고객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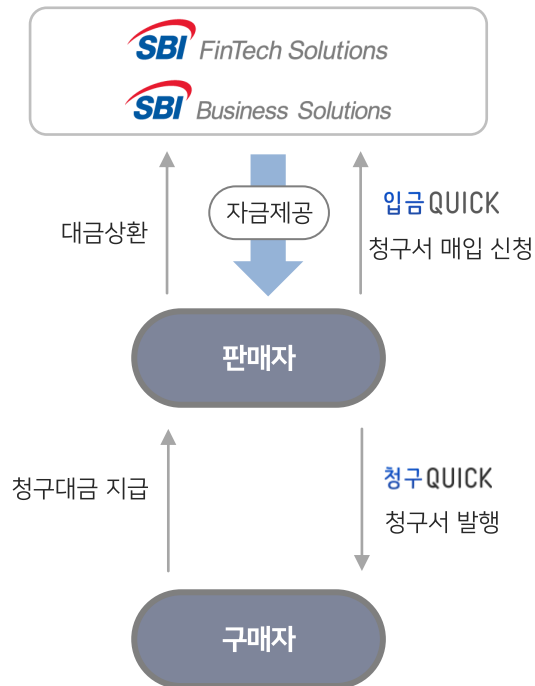
### 팩토링 서비스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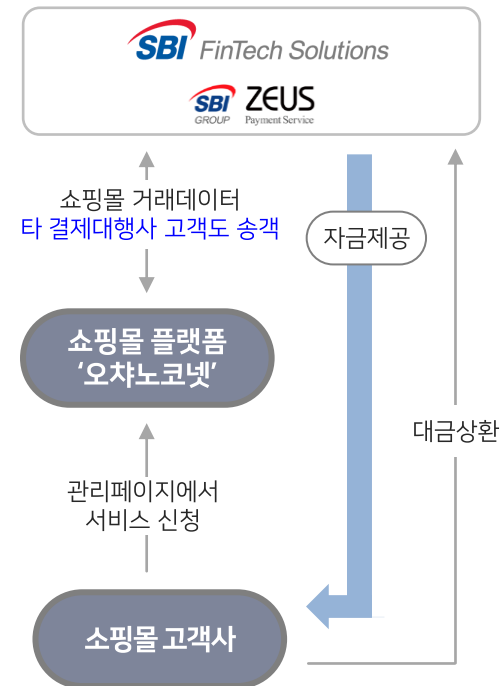
### 입금QUICK 서비스

「청구QUICK」에서 발행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청구대금을 자금화



### EC렌딩 서비스

쇼핑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자금을 지원하는 렌딩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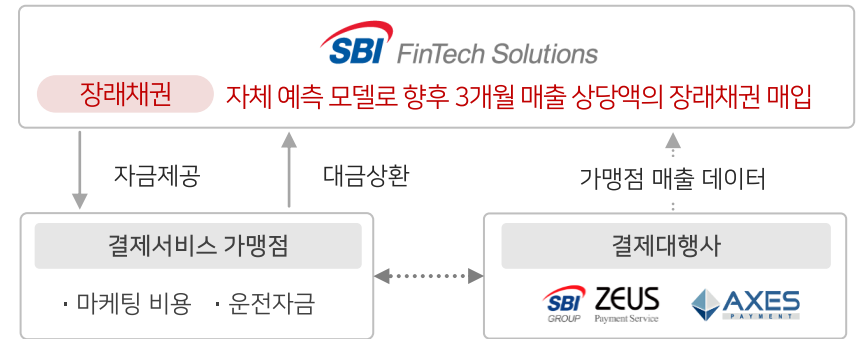
## FinTech를 이용한 심사 모델로 다양한 고객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솔루션입니다.

- 사례 1) 조제약국 대상으로 진료보수채권과 카드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지원서비스 전개로 안정적인 채권 포트폴리오 구축
- 사례 2) 운전자금이 필요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장래채권 예측 매입서비스 제공
- 사례 3) 생산자금이 필요한 고향납세 지역사업자 대상 조기지급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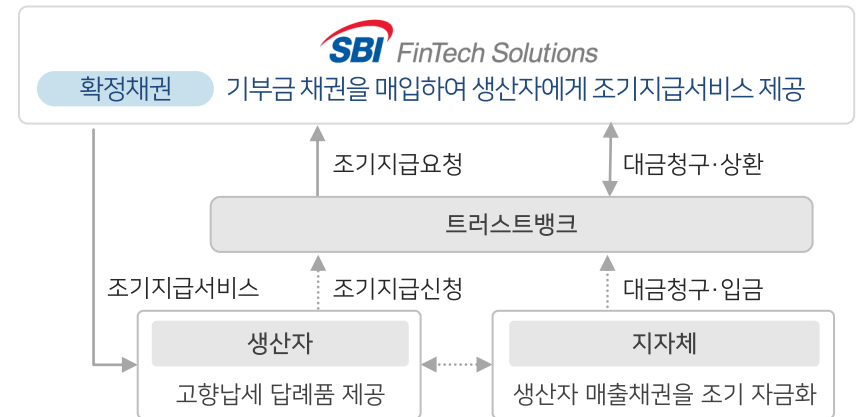
### 주요사례 1) 의료기관 대상 자금지원서비스



### 주요사례 2)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상 자금지원서비스



### 주요사례 3) 고향납세 지역사업자 대상 조기지급서비스



의료비 시장규모 (2020년도 기준)

병원 의료비 42.2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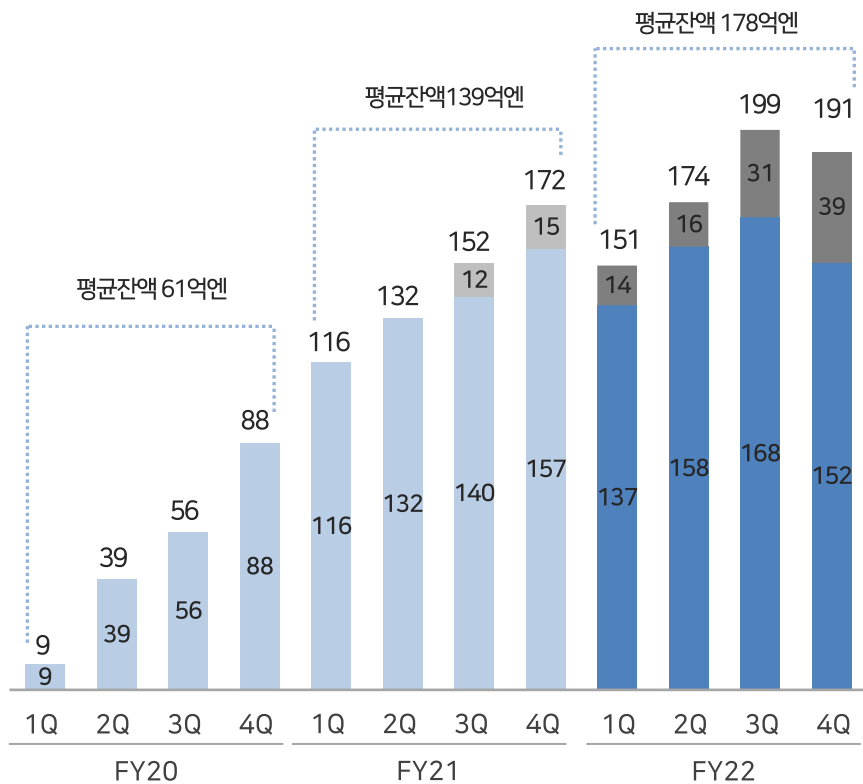
약국 조제의료비 7.5조엔

## FY22 매출채권 취급 평잔 178억엔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 「자금조달력」+ 「FinTech 심사모델」+ 「안정적 채권 포트폴리오」로 비즈니스 모델 조기 정착
- FY22 취급잔액 중 진료보수채권 비중은 66%로 YoY 16%p 증가하며 성장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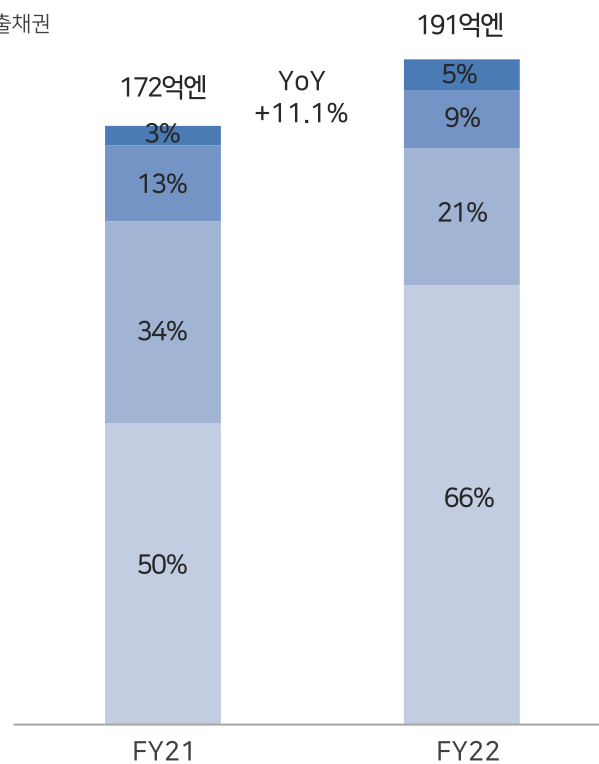
취급잔액 추이 (억엔)

■ 채권잔액 ■ 채권유동화



취급잔액 구성비

■ 진료보수채권  
■ 대리점보수채권  
■ 온라인쇼핑몰 관련 매출채권  
■ 기타



## 백오피스SaaS 사업

SBI Business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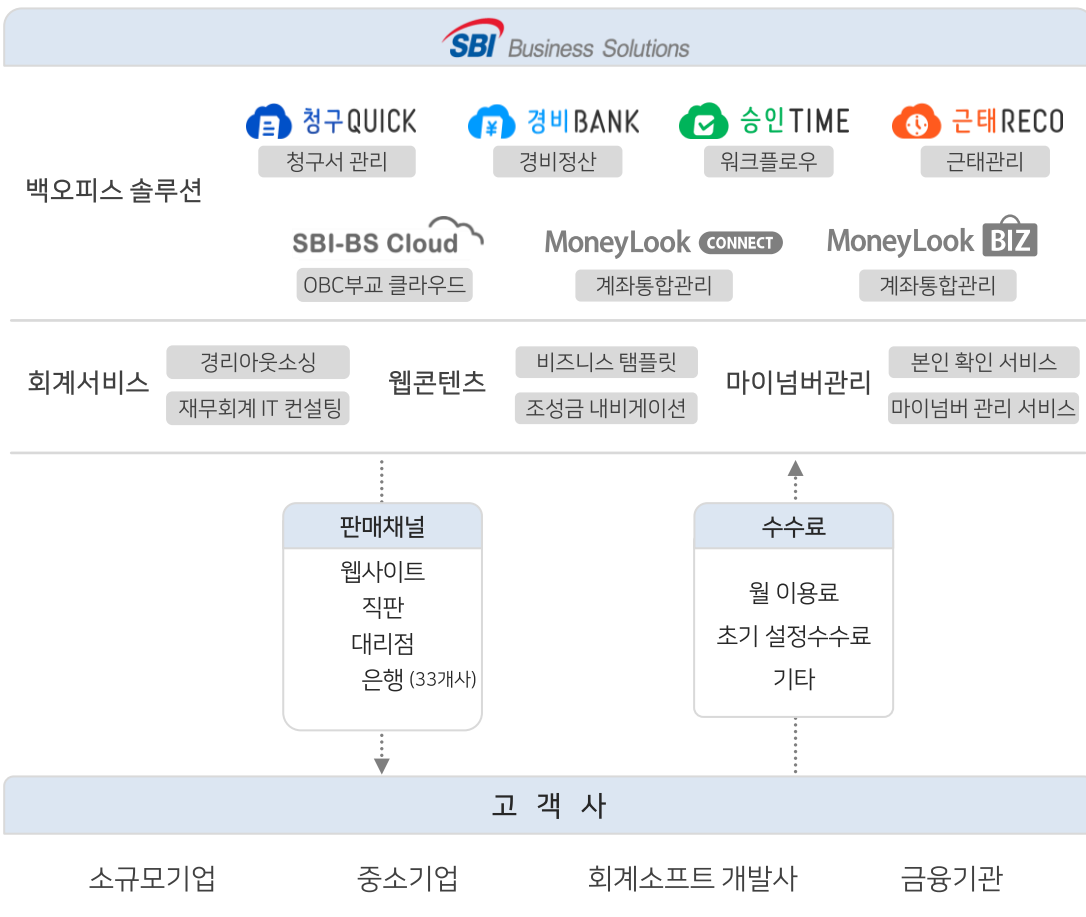


청구서 관리 · 경비정산 · 워크플로우 · 근태관리 등 SME 대상  
클라우드형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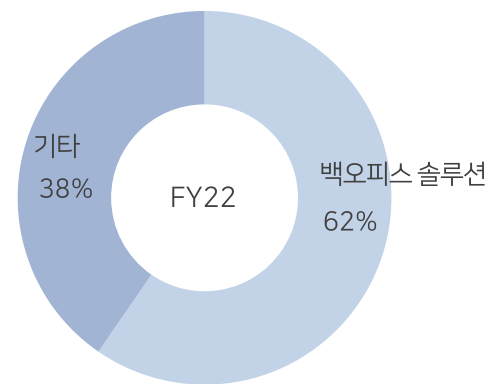


백오피스SaaS 사업은 SME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최적의 백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구조



## 매출구성



구분	정의
백오피스 솔루션	기업용 백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기타 서비스	
회계서비스	경리아웃소싱 & 컨설팅
웹콘텐츠	비즈니스 템플릿 조성금·보조금 검색·상담 지원 서비스
마이넘버관리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

### SME의 다양한 백오피스 업무를 커버하는 SaaS 라인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청구QUICK



청구서 발행 및 수령, 입금확인,  
전표처리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청구서 관리 시스템

#### 경비BANK



경비신청 및 승인, 송금, 회계데이터 작성까지  
원스톱 지원하여 회계 프로세스를 간소하는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

#### 승인TIME



언제 어디서든  
품의 및 날인신청 · 승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시스템

#### 근태RECO



출퇴근 기록 및 휴가 등  
인사·근태 업무 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근태관리 시스템

#### SBI-BS Cloud



OBC Bugyo 시리즈 제품을  
웹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 Business Pay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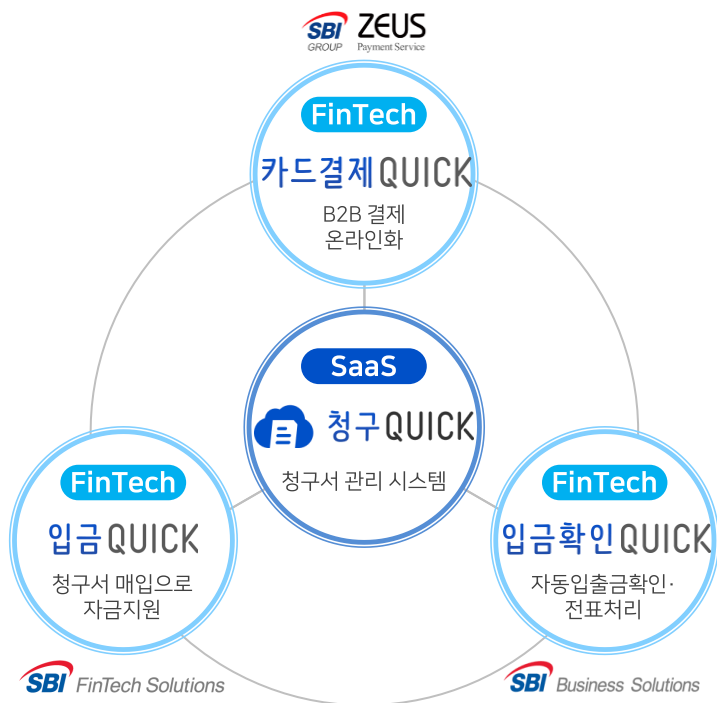
법인카드를 1장 단위로  
실시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청구QUICK」은 그룹 시너지를 통해 타사와 차별화되는 솔루션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자청구서 발행은 물론 MoneyLook에 의한 자동입금확인, 청구서 카드결제, 청구서 매입에 의한 자금조달까지 커버해 독자적인 제품 포지션을 확립
- 청구서 매입 기능과 청구서 카드결제 기능은 SBI FinTech Solutions 그룹의 시너지를 활용한 서비스로 신규 고객 유입의 트리거 역할

**청구 QUICK**  
SaaS & FinTech

- 청구서 발행만 제공하는 타사와 차별화하여 청구서 수령은 물론 전자보존까지 커버하는 All in One 솔루션
- SaaS만 제공하는 타사와 차별화하여 「SaaS + FinTech」를 융합한 제품력 및 자금력으로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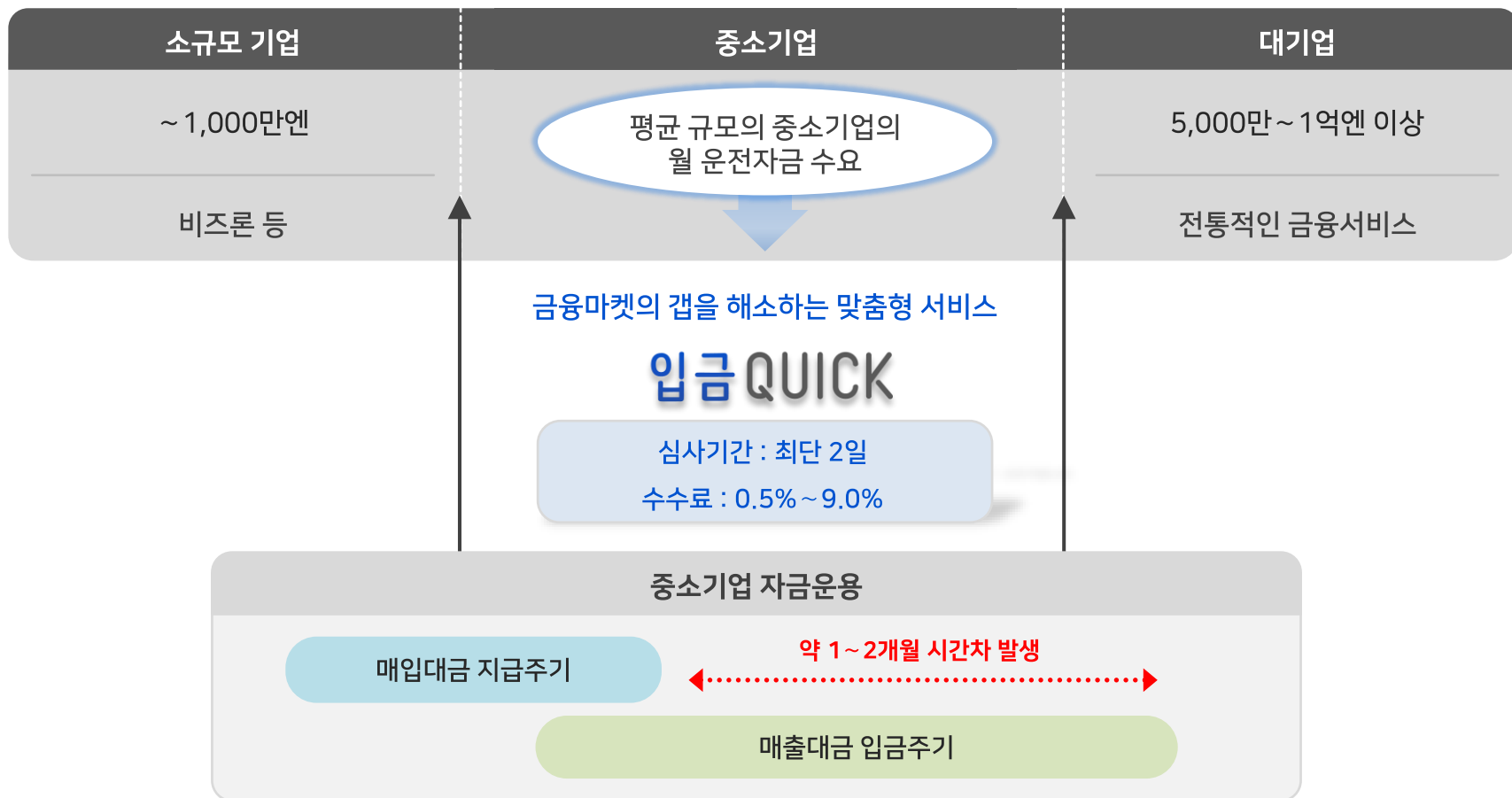


	청구 QUICK	A사 청구서 솔루션
청구서 발행	○ SaaS	○
청구서 수령*	○ SaaS	×
청구서 전자보존	○ SaaS	×
청구서 매입	○ FinTech	×
B2B카드결제	○ FinTech	×
은행API	○ FinTech	×
자동입출금확인	○ FinTech	×
자동전표처리	○ SaaS	×

주) 청구서 수령 기능은 2023.9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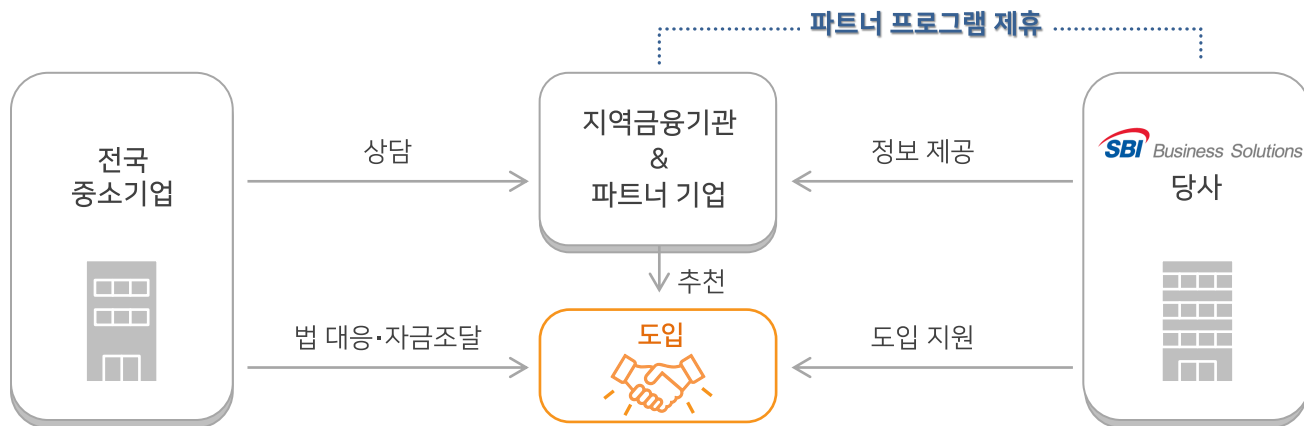
‘입금QUICK’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청구QUICK」의 핵심 FinTech 서비스입니다.

- 일본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시장은 금액/비용/빈도/스피드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
- 일본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수요를 「청구QUICK」내에서 발행한 청구서를 체크하여 매입하는 온라인 팩토링 서비스로 대응



지역금융기관 및 세무 컨설팅사 등의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일본 전역의 고객을 커버합니다.

- SBI그룹 지방창생 사업의 지역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그룹 시너지 극대화
- 시행법 대책이나 자금조달 수요가 있는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 전국 중소기업에 핀테크 모델로 새로운 '자금관리 플랫폼' 제공



제휴 지역금융기관

파트너 기업



제휴 지역금융기관 FY22 현재 18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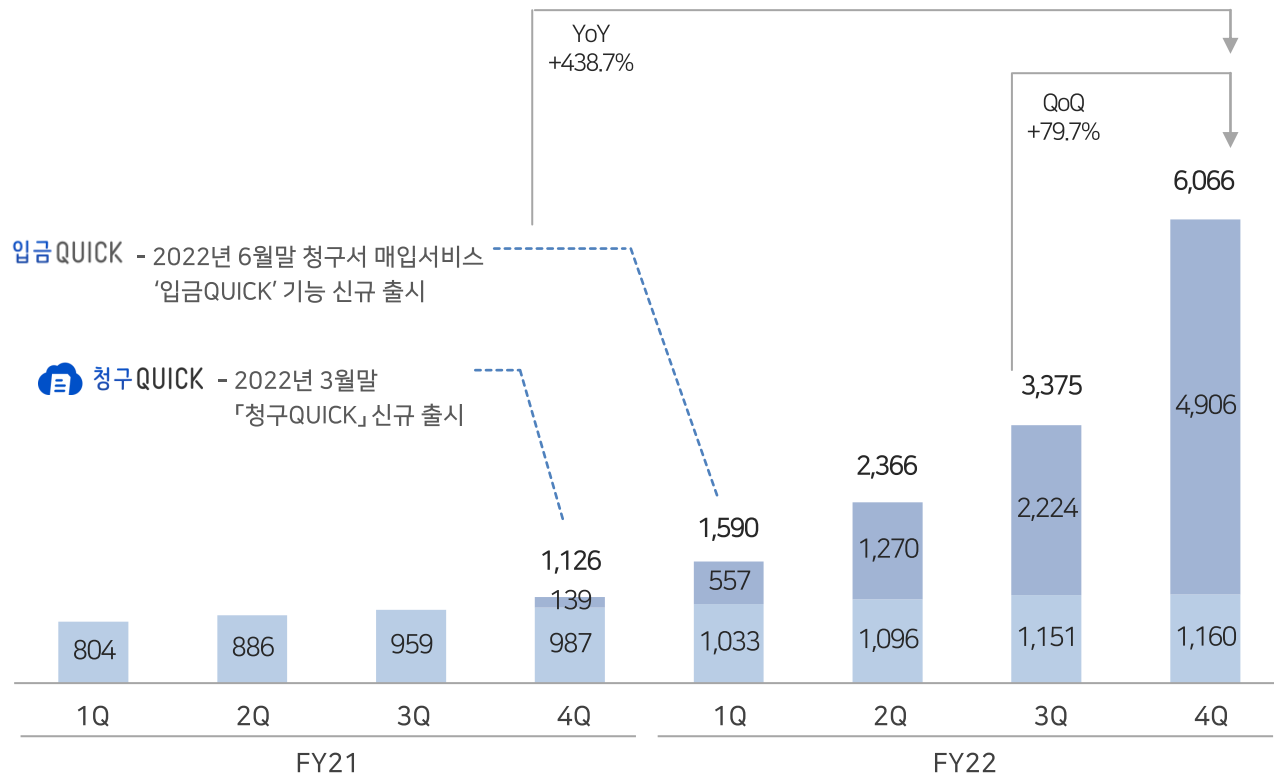
제휴 파트너사 FY22 현재 16사



「청구QUICK」신규 런칭 이래 백오피스 솔루션 신규고객수의 급증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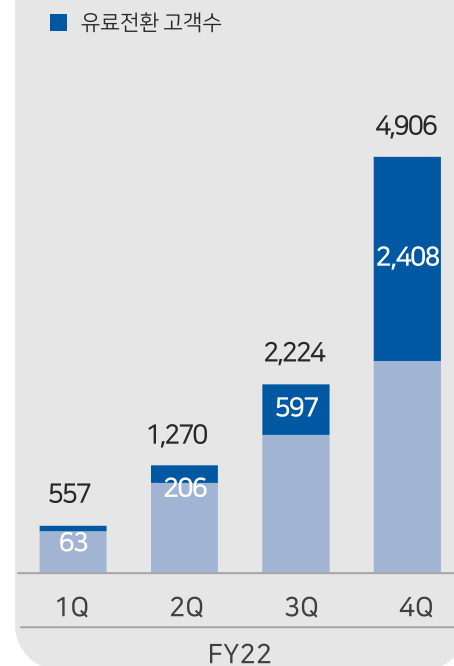
- 2022년 3월말 「청구QUICK」 런칭 이후 FY22 기준 백오피스 솔루션 고객사수 6,066사, 그 중 「청구QUICK」 고객사수 4,906사
- 4Q 제휴 지역금융기관 통한 대규모 고객 유치로 FY22 기준 「청구QUICK」 유료전환 고객사수는 2,408사 달성
- 4Q 「청구QUICK」 유료고객 획득수 업계내 선두권으로 도약

백오피스 솔루션 누적 법인고객수 (사)



■ 기타 백오피스 솔루션 ■ 청구QUICK

청구QUICK 고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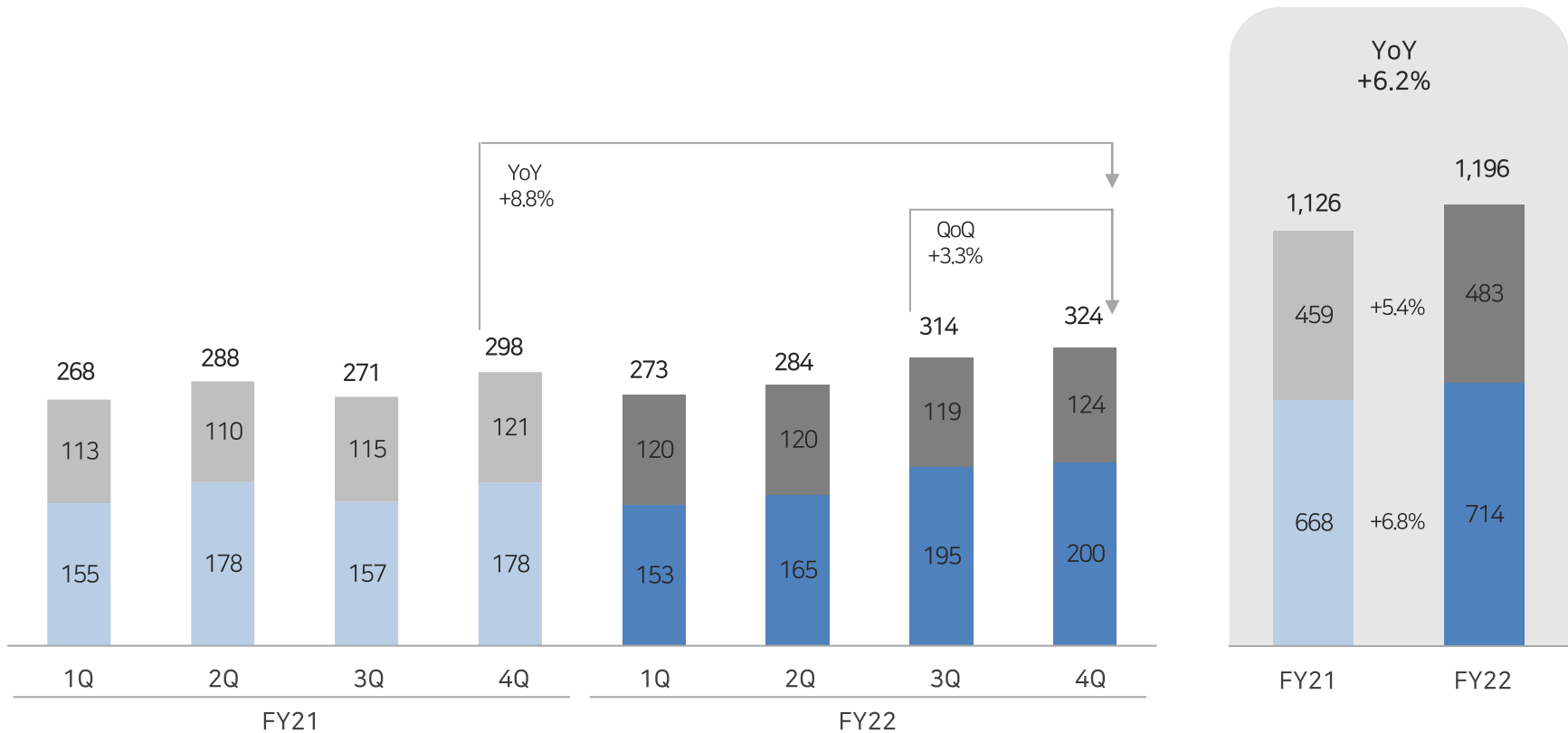


## 백오피스 솔루션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FY22 기준 백오피스 솔루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약 60% 점유하며 점진적으로 성장 지속
- FY22 2Q부터 「청구QUICK」 관련 매출이 신규로 발생, 타 서비스 수수료 조정에 따른 효과 상쇄하며 향후 매출성장세 지속 기반 마련

매출액 추이 (백만엔)

■ 백오피스 솔루션 ■ 기타



## 국제송금 사업

SBI Cosmoney



다양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내 국제송금 서비스 제공



국제송금 서비스는 다양한 결제 네트워크와 FinTech를 통해 기존은행의 SWIFT 송금을 대체합니다.

### SWIFT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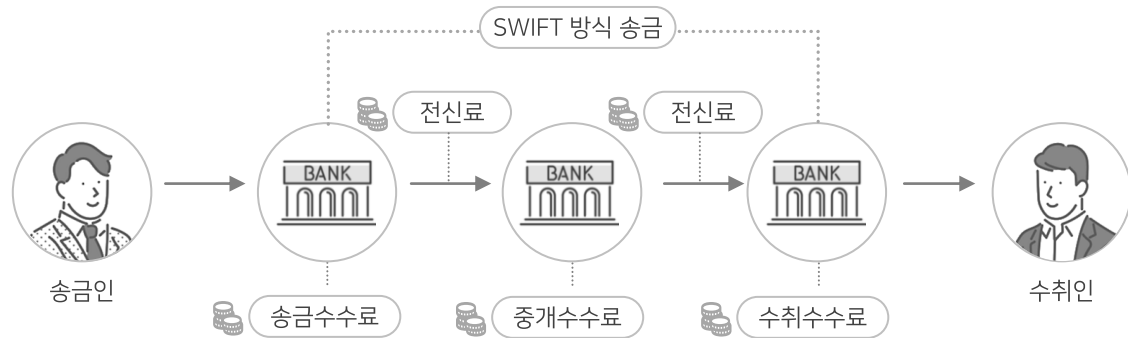
비싼 수수료  
각 은행마다 수수료 발생



느린 송금 시간  
착금까지 2~4일 소요



복잡한 절차  
번거로운 서류절차



### SBI코스머니



저렴한 수수료  
은행 대비 최대 90% 저렴한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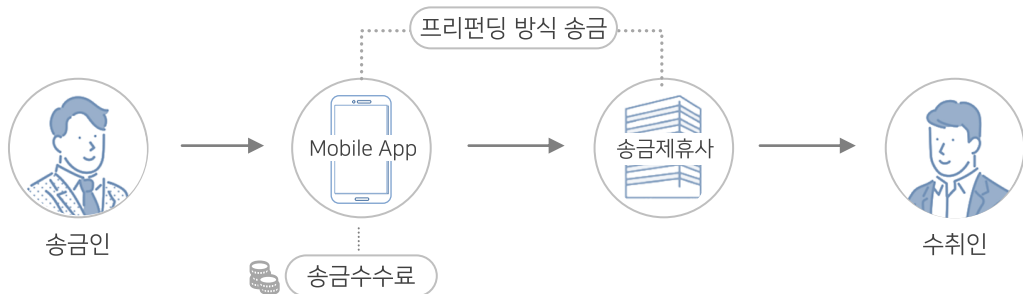
빠른 송금 시간  
최소 1분 최대 1일 이내 송금 도착



간편한 송금  
서류 제출 없이 원하는 시간에 송금



FinTech 기술로 빠르고·저렴하고·간편한 국제송금 제공



※ 프리펀딩 : 외국 제휴기관에 일정 금액의 목돈을 송금해 놓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지에서 보내 놓은 돈을 필요한 만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

### 2018년 3월 사업개시 이래 총 12개국에 FinTech를 활용한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3년 신외환법 개정시 현행 송금 한도 규제(연간 USD 50,000) 해소 기대
- '23년내 신규 파트너사 및 송금국가 확대 추진

#### 서비스 개요

365일, 24시간  
12개국 국제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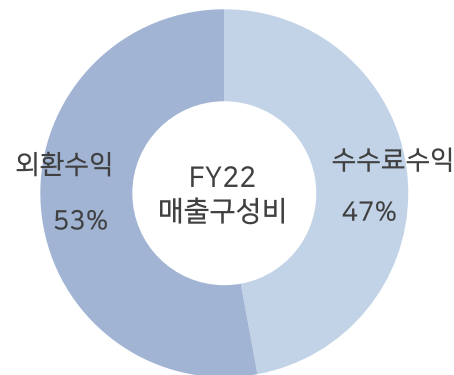
송금 한도      건당 USD 5,000    연간누계 USD 50,000

2023년 3월 기준  
앱 누적 다운로드 수 49만건



기타 다수의 글로벌 송금 파트너

#### 매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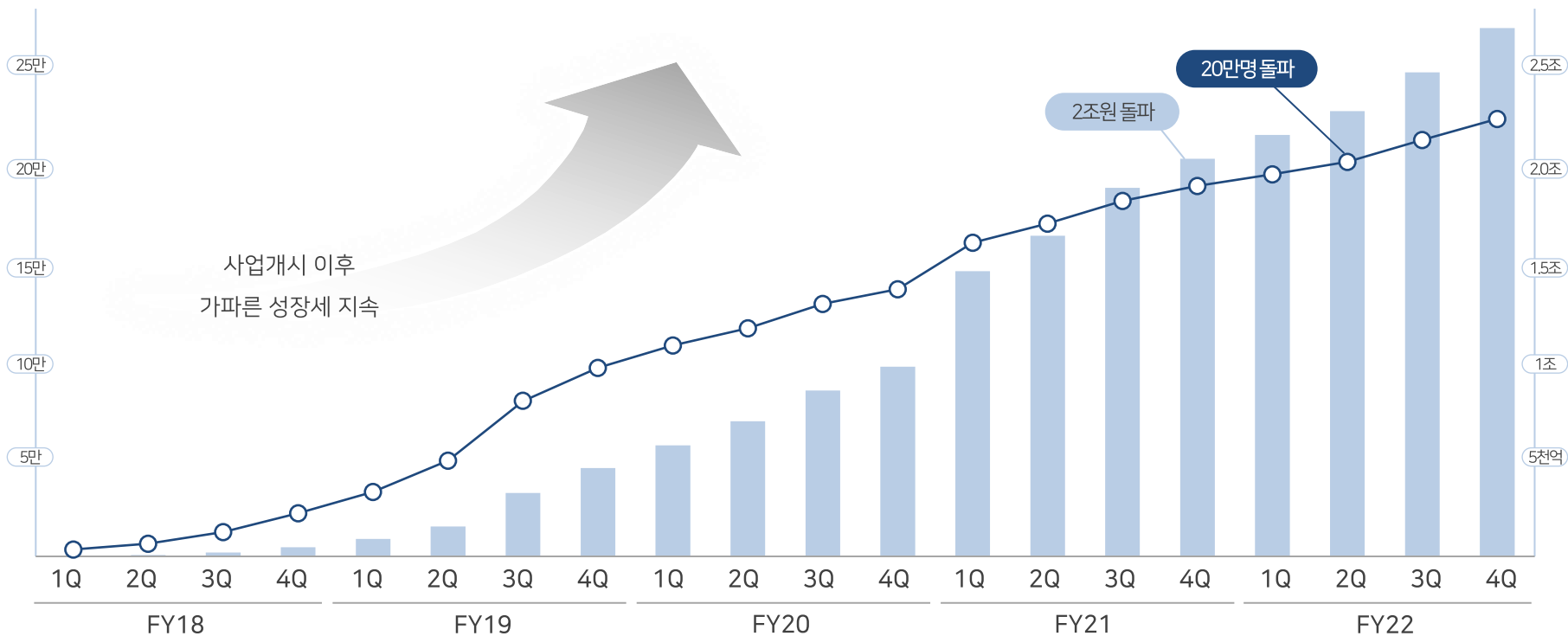
구분	정의
수수료수익	송금국가 및 송금금액 구간별로 설정한 수수료
외환수익	원화로 입금된 송금자금을 송금지 현지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수익

자본력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누적송금금액 2.7조원을 돌파한 국제송금 FinTech업체 중 Top-tier입니다.

- 코로나19 영향 완화로 인해 체류외국인수 증가 기대로 국제송금시장 회복세 전망
- '23년내 누적송금금액 3조원 돌파 전망

SBI Cosmology 송금금액 및 회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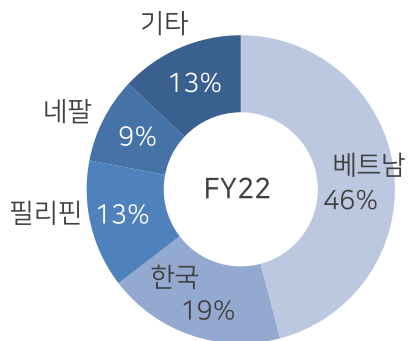
■ 누적 송금금액 ○ 누적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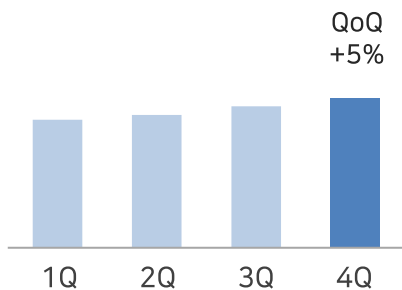
## FY22 비우호적 영업환경 개선되며 국제송금 업황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 FY22 4Q 원화 강제전환에 따른 국제송금 수요 증가로 송금금액 및 송금건수 각각 QoQ 14%, 11% 증가
- 타사 대비 수수료 경쟁력 및 송금 편의성 확보로 인해 신규회원 증가세 시현, '23년 외국인 출입국 규제완화로 국제송금 영업환경 본격적인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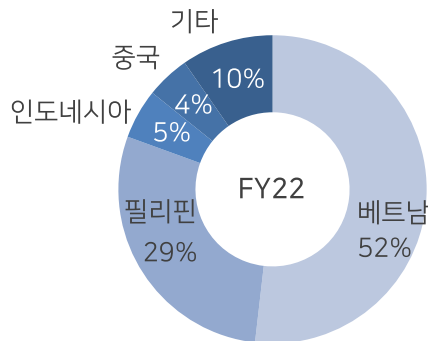
누적 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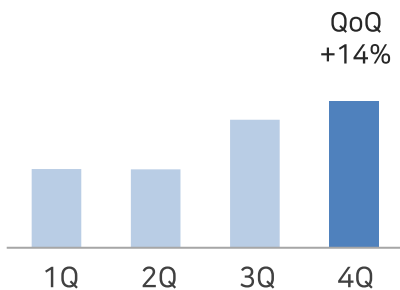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 완화로  
당사 회원수 증가세 회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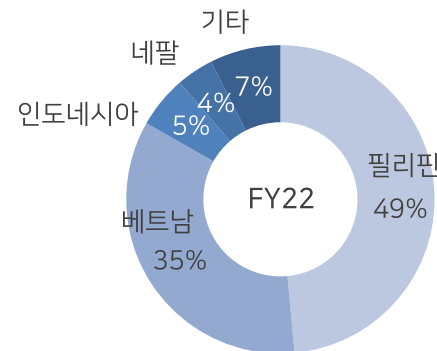
송금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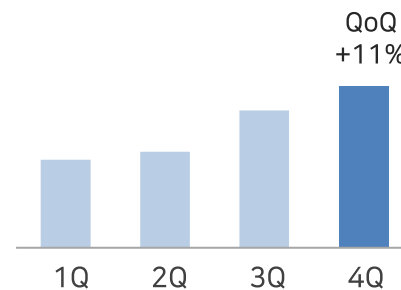
환율 상황 개선으로  
국제송금액 증가세 유지



송금건수



베트남 송금건수 QoQ +25% 상승하며  
전체 송금건수 증가 견인



## Appendix

주주환원방침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지배구조

회사 개요 및 연혁

SBI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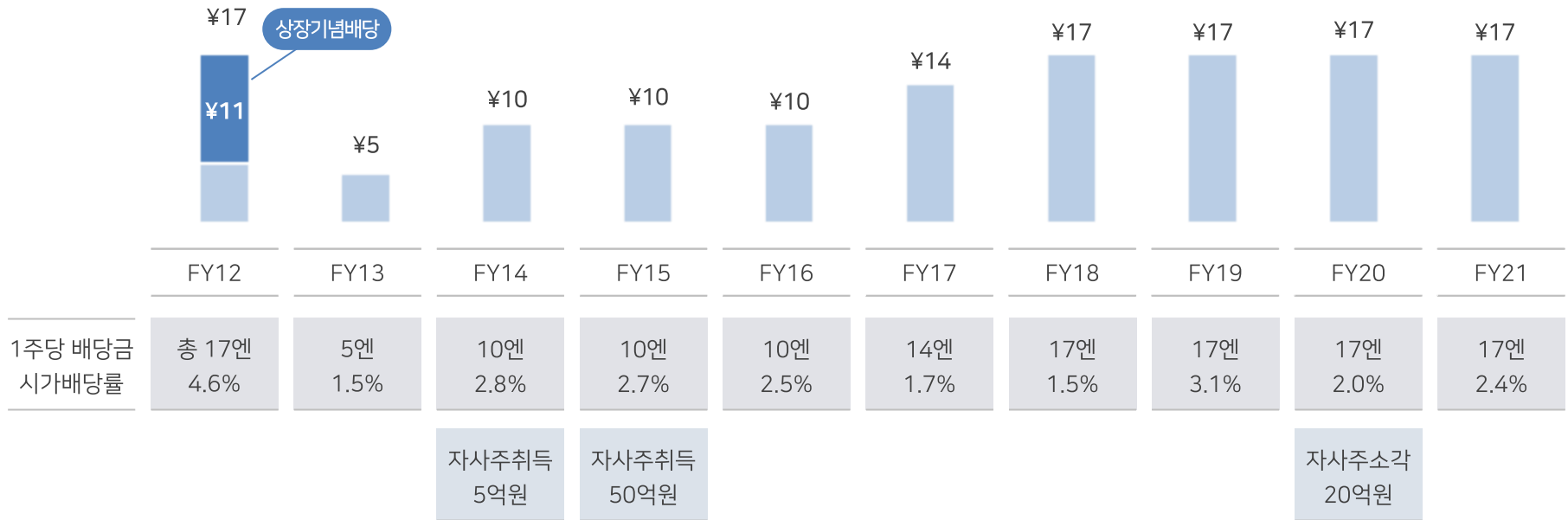
# 주주환원방침

상장 이래 SBI FinTech Solutions는 매년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당방침

당사는 주주 여러분에 대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환원을 경영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 방침을 유지하며 실적과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당 등을 실시하며, 연결 당기순이익 20%를 배당성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가배당률 = 배당 관련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일주일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증가의 산술평균 가격을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로 산정

#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구분	FY22	FY21	FY20
재무상태표(기말)	9.8144	9.9274	10.2733
손익계산서(평균)	9.6628	10.3777	10.9415

## ● 연화기준

단위: 백만엔

과목	FY22	FY21	FY20
매출액	5,401	5,543	4,701
매출원가	1,862	1,970	1,790
매출총이익	3,538	3,573	2,911
판매비와 관리비	3,080	3,130	2,677
기타차익 및 차손	(9)	(65)	556
영업이익	448	377	789
금융수익	19	6	5
금융비용	134	95	71
외환차손익	17	10	(1)
지분법투자손익	95	(64)	3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45	234	759
법인세비용	83	457	320
계속사업이익	361	(223)	439
중단사업이익	0	(311)	284
당기순이익	361	(534)	723
지배기업의 소유주	359	(537)	725
비지배지분	2	3	(2)

## ● 원화기준

단위: 백만원

과목	FY22	FY21	FY20
매출액	52,195	57,529	51,444
매출원가	18,000	20,444	19,589
매출총이익	34,195	37,085	31,855
판매비와 관리비	29,766	32,490	29,300
기타차익 및 차손	(96)	(678)	6,086
영업이익	4,332	3,916	8,640
금융수익	187	67	58
금융비용	1,302	992	777
외환차손익	168	108	(20)
지분법투자손익	918	(669)	4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04	2,431	8,309
법인세비용	808	4,745	3,504
계속사업이익	3,496	(2,314)	4,804
중단사업이익	0	(3,232)	3,107
당기순이익	3,496	(5,546)	7,912
지배기업의 소유주	3,473	(5,580)	7,941
비지배지분	23	33	(29)

※ IFRS기준  
중속회사 매각에 따른 IFRS 5호(매각예정비무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으로 과거수치를 소급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FY22	FY21	FY20
재무상태표(기말)	9.8144	9.9274	10.2733
손익계산서(평균)	9.6628	10.3777	10.9415

## ● 엔화기준

단위: 백만엔

과목	FY22	FY21	FY20
비유동자산	9,122	9,719	6,992
유동자산	38,677	33,612	29,187
<b>자산총계</b>	<b>47,799</b>	<b>43,332</b>	<b>36,179</b>
비유동부채	8,589	11,371	7,621
유동부채	34,410	27,149	24,086
<b>부채총계</b>	<b>42,999</b>	<b>38,520</b>	<b>31,708</b>
자본금	1,454	1,454	1,452
기타불입자본	1,011	1,011	(211)
이익잉여금	2,625	2,657	3,587
자기주식	(325)	(325)	(325)
기타자본구성요소	23	5	(37)
지배회사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4,788	4,802	4,465
비지배지분	11	8	5
<b>자본총계</b>	<b>4,800</b>	<b>4,811</b>	<b>4,470</b>

※ IFRS기준

## ● 원화기준

단위: 백만원

과목	FY22	FY21	FY20
비유동자산	89,527	96,490	71,831
유동자산	379,597	333,686	299,848
<b>자산총계</b>	<b>469,125</b>	<b>430,177</b>	<b>371,679</b>
비유동부채	84,299	112,886	78,300
유동부채	337,716	269,523	247,450
<b>부채총계</b>	<b>422,016</b>	<b>382,410</b>	<b>325,751</b>
자본금	20,566	20,566	20,552
기타불입자본	14,417	14,417	(2,408)
이익잉여금	28,004	28,709	38,520
자기주식	(3,320)	(3,320)	(3,320)
기타자본구성요소	(12,670)	(12,694)	(7,469)
지배회사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46,997	47,678	45,873
비지배지분	111	88	54
<b>자본총계</b>	<b>47,109</b>	<b>47,766</b>	<b>45,928</b>

# 지배구조



※ 상기 % 는 지분율

# 회사 개요 및 연혁



(기준: 2023.3.31)

회 사 명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본 사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2-1-1 아오야마퍼스트빌딩 9층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13층
그 룹 사	ZEUS, SBI비즈니스솔루션즈를 포함한 9개사
사 업 영 역	결제서비스 사업 백오피스SaaS 사업 국제송금 사업
직 원 수	228명(연결)
설 립 일	2011년 4월 4일
자 본 금	14억 5,410만엔
결 산 월	3월
상 장 일	2012년 12월 17일
상장증권거래소	<b>KOSDAQ</b> (종목코드 : 950110) <small>KOSDAQ Listed Companies Association</small>

## 연 혁

- 2011 SBI AXES 설립 SBI그룹 편입
- 2012 SBI AXES Korea 설립 **KOSDAQ** 상장  
KOSDAQ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 2014 BroadBand Security 자본·업무 제휴 체결  
Business Search Technologies 자회사화
- 2015 BroadBand Security 관계회사화
- 2016 SBI Holdings의 연결 자회사 편입
- 2017 SBI레밋 / SBI소셜렌딩 /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자회사화  
SBI FinTech Solutions로 사명변경  
SBI Cosmoney 설립, 자회사화
- 2018 SBI Cosmoney 유상증자  
SBI소셜렌딩 매각
- 2019 SBI Cosmoney 유상증자
- 2020 Business Search Technologies 매각
- 2022 SBI레밋 매각  
ZEUS 유상증자

# SBI그룹

SBI그룹은 일본 제1의 글로벌 온라인 종합금융그룹으로 FinTech 분야 투자에서 세계 탑클래스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기준: 2023.3.31)



설립일	1999년 7월 8일	자본금	1,392억엔	결산	3월
그룹사	643사	총자산	223,107억엔	상장	도쿄 PRIME
직원수	18,756명(연결)	순자산	17,486억엔	시가총액	7,146억엔

## 금융서비스 사업

### SBI증권

온라인종합증권

### SBI네오모바일 증권

모바일증권

### SBI신세이은행

시중 대형은행 **도쿄 STANDARD**

### 스미신SBI넷은행

인터넷은행 **도쿄 STANDARD**

### 아루히

주택담보 대출 **도쿄 PRIME**

### SBI지역은행홀딩스

지역은행 비즈니스 관리

### SBI인슈어런스그룹

보험지주회사 **도쿄 GROWTH**

### SBI생명

생명보험 **도쿄 PRIME**

## 자산운용 사업

### SBI글로벌에셋매니지먼트

투신 등급 평가 **도쿄 PRIME**

### 웰스어드바이저

투자자 자문 서비스

### Carret Asset Management

자산운용서비스

### SBI에셋매니지먼트

투자운용·고문

## 투자 사업

### SBI인베스트먼트

벤처캐피탈

### SBI VEN CAPITAL

해외투자사업

### SBI리싱서비스

리스사업펀드 **도쿄 GROWTH**

### SBI크립토인베스트먼트

유가증권 등 투자사업

## 암호자산 사업

### B2C2

암호자산 마켓메이커

### SBI VC 트레이드

암호자산 거래 시스템 제공

## 비금융 사업

### SBI ALApharma

ALA 관련 사업 통괄·운영

### SBI바이오텍

의약품 연구 개발

한 국 진 출  
주 요 계 열 사

### SBI FinTech Solutions

핀테크·EC결제 **KOSDAQ**  
KOSDAQ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 SBI인베스트먼트코리아

벤처캐피탈 **KOSDAQ**  
KOSDAQ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 SBI저축은행

한국 최대 저축은행

### SBI캐피탈

신기술사업 금융업



## IR Contacts

Tel 02-2038-2791

Fax 02-2038-2796

Email [ir@sbi-finsol.co.jp](mailto:ir@sbi-finsol.co.jp)

Site <https://www.sbi-finsol.co.jp/kr/>

Address 17F Two IFC, 10,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